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제2932호 www.metroseoul.co.kr

생존걸린 제약사 의사처방에 목매

연중기획 '다시 공정사회다' ⑨또 다른 '슈퍼 갑' 병원·의사

#1 지난 2012년 2월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인턴에게 의약물을 무단으로 투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상시험이라는 명목 아래 선배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다. 또 같은 해 8월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원 내 고객소리함에 민원을 넣었다. 정형외과 교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전공의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이 두 사건은 병원 안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을'의 위치에 놓인 의사들이 아직도 수두룩한 것이다.

#2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은 동아ST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과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대한 추징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동아ST가 검찰과 법정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회원들에게 동아ST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고 제품 처방을 하지 말라고 전달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불구 갑질횡포 여전
인턴<전공의<펠로우<교수 철옹성도 문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처방을 반대하는 일은 법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소지가 명확한 담합이다. 하지만 '의사=갑, 제약사=을'이라는 공식이 지배하는 갑을 관계라 제약업계는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의사·병원과 제약사 간 갑을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라미드 속에서 사는 의사들

사실 보건의료계, 그중 병원과 의사의 갑을 문화는 병원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이 땅에 의대가 들어선 후부터니 꽤 오래된 사실이다. 즉 같은 흰 가운을 걸치고 있지만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는 ▲인턴 ▲전공의 ▲임상강사(펠로우) ▲교수가 피라미드식 갑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직급 때문인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교수 아래에서 전공의와 임상강사들은 을이 된다. 하지만 이들은 인턴들에게 또 다른 갑이 된다.

특히 '펠노예'라 불리는 임상강사는 수술 어시스트, 회진과 같은 본인 업무는 물론 지도교수의 논문 작업과 잡무를 모두 떠맡아 처리한다. 심할 경우 교수실 청소와 운전기사 노릇까지 할 때도 있다. 그래서 펠노예라고 명명된 것.

문제는 이 피라미드식 갑을 관계가 절대 깨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대학병원의 교수 자리, 개원의로서의 성공까지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지도교수의 입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절대 밉보여서는 안 될 사람이 지도교수라는 말이다.

한 전공의는 "힘들어도 신분 노출을 꺼려서 문제 해결은커녕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묵인된 관습으로 인해 약자가 더욱 약해져 스스로 이 관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영업사원 자살까지

이와 함께 병원과 의사들은 제약사에 영원한 '슈퍼 갑'이 된다. 제약사의 의약품을 써주는 주체가 의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을 모시게 되고 이런 관행이 리베이트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다시 말해 제약사에 있어 병원과 의사는 회사의 매출과 생존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병원과 의사는 처방전을 무기로 온갖 갑질을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안 나선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나 병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쌍벌제 도입을 건의한 한미약품이 철퇴를 맞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한미약품의 의약품 처방을 거부했고 한미약품은 당시 창립 이후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갑을 관계를 재확인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 지난 2월 재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해 대형병원들은 올해 1월 제약사에 공문을 보냈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내용이다. 약가를 최대한 낮춰서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병원의 전략으로 제약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해당 병원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마도 병원·의사와 제약사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리베이트 문제와 매출, 영업 현실 등으로 제약사 영업사원이 자살했다는 보도가 공공연하게 나오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 집단이라는 슈퍼 갑의 존재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병원·의사와 제약사 간의 갑을 관계를 허물 수는 없는 것이다. <4면에 계속>

지구촌 빈곤아동 응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사범대 부설 초등학교에서 열린 제6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발대식에서 어린이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가해 초대형 지구본에 지구촌 빈곤 아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뒤 하늘로 띄우는 순서로 진행됐다. /뉴시스

금형기술사 월평균 756만원 받는다

국가기술자격 중 가장 많은 한 달 평균 임금을 받는 분야는 '금형기술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지난 3년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률 등을 분석한 '국가기술자격 취업률 등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금형기술사 종사자의 한 달 임금은 756만1837원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도 각각 100%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금속제련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월평균 임금이 745만2331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은 95.2%, 90.0%를 기록했다.

3위는 조선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조사됐다. 조선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한 달 임금은 713만202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은 각각 100%, 80%를 기록했다.

서비스 종목 자격증 중 가장 높은 한 달 평균 임금은 '소비자 전문상담사 1급'으로 상위 20개 자격증 가운데 유일하게 서비스 분야다. 1급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임금은 690만1684원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사 중에는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가 한 달 평균 654만1375만원을 받았고, 기능장 중에는 '제선기능장'이 710만1736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제강기능장·원자력발전기술사·항공기체기술사·압연기능장·차량기술사·철도기술사·철도신호기술사·화공안전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금속재료기술사 등이 평균 임금 상위 20개 종목에 들었다. /윤다혜기자 ydh@

의협, 명분인가 이기주의인가

기자 수첩
황 재 용
<생활레저부 기자>

의료계가 지난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총파업의 여파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뒤엉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0일 파업 참여율을 놓고 벌이는 진실 공방이 가관이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파업 참여율은 20.3%인 반면 의협의 휴진율은 49.1%다. 다른 방식으로 집계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28.8%의 차이는 그 간극이 너무 크다. 이런 차이는 누구에게나 의문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런 진실 공방과 의문은 의협과 노환규 의협 회장의 신뢰성에만 큰 타격을 줄 뿐이다. 지난 7일 청와대의 중재안 거부 논란을 일으키며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총파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했다는 점에서 노 회장은 그 책임과 도덕성에 대한 질타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단체들과 대한약사회 등도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이미 조언한 바가 있어 집단 이기주의라는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가를 올리기 위해 파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의약분업 시행 때 수가가 7.08% 오르는 등 의사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날 때는 어김없이 의사들이 높은 수가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

전면휴진을 앞둔 총파업보다는 자신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먼저 마주 봐야 할 것이다.

정몽준·이혜훈 무슨 얘기했나

어제 카페 회동…빅딜설에 "경선 룰 논의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오전 광화문의 모 카페에서 당내 경쟁자인 이혜훈 최고위원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보좌관도 수행하지 않은 채 둘만의 만남이 진행돼 모종의 '빅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실제로 10일 민주당은 '정몽준·이혜훈 빅딜설'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이 최고위원의 주소가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로 나와 있다"며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에서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서초갑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갑자기 정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로 이사를 해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최고위원이 정 의원과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단일화하고 대신 동작지역 보궐선거를 지원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6·4 지방선거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 룰조차 확정되지 않자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몰랐던 정 의원 측근은 "정 의원께 확인해 보니 후보 등록 마감이 15일까지 늘어난 마당에 그때까지라도 당내 일정과 룰을 정하고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경선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11일 오전 광화문 모 카페에서 이혜훈 최고위원과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 의원은 전날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 마감일을 애초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한 데 대해 "형평성을 잃은 것인지, 누가 누구와 내통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당내 또 다른 서울시장 공천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의원 측 역시 "두 분의 만남은 보좌관도 모르는 사실이었다"며 "공천 신청 마감일을 연기한 것에 이 최고위원도 불만이 많았다. 이른바 '2:3:3:2' 경선 룰을 조기 확정하고, 선거인단과 함께하는 권역별 순회 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을 정 의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은 1월 23일로, 당시 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할 때다. 민주당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끝까지 경선을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3:3:2' 경선 룰은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있는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경선 승리자를 뽑는 것으로, 새누리당 일부 후보들은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선 룰을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보좌관도 수행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만나 이야기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 않겠다"

6·4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출마가 거론됐던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지사에 출마하지 않고 중앙정치를 계속하겠다"며 "오늘부터 전남도지사 후보에 제 이름이 거론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신당에서, 특히 6·4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며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최근 더욱 꼬이고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지사 경선은 민주당 이낙연·주승용·김영록 의원, 새정치연합 이석형 전 전남 함평군수 등 4명이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정기자 jhj@

한·캐나다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흥국 금융 먹구름 몰려오나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산업부 기자>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또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 조짐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설은 터키·러시아·우크라이나를 거쳐 베네수엘라·태국까지 이른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고물가와 외환 보유액 감소로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태국에서도 반정부 시위와 정정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아시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주식·채권시장도 신흥국 금융 불안에 덩달아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펀드의 자금 흐름과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상황을 자신했던 금융 당국의 입장이 변한 것이다.

올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1조9000억원)와 채권 투자(-1조2000억원)는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급해진 금융 당국은 부랴부랴 외국인 자금 흐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긴장 모드'로 돌아섰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신흥국 불안이 터질 때마다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급변동하고 있다. 언제까지 뒷짐지고 방관만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북한 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발표

북한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11일 발표했다.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 투표했다"며 6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정은 집권 후 실세로 떠오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마원춘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대의원에 새로 뽑혔다.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는 대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김정은과 함께 투표해 관심을 모았던 여동생 김여정은 대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재룡 주중대사와 자성남 유엔대사, 남북 간 고위급 접촉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원동연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 등은 이번에 새로 대의원이 됐다. /조현정기자 jhj@

국정원 지휘부 개입여부 주목

검찰, 압수수색서 확보한 자료 분석 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11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과 내부 문건, 전산 자료 등 기밀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5시부터 8시간 30분가량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 등 문건·컴퓨터 및 노트북 하드디스크·관련 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중국 측에서 밝히면서 진상 규명 작업에 들어갔고 지난 7일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명 '김 사장'으로 알려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이 김씨로부터 변호인 제출 증거를 반박하는 내용의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를 건네받아 이인철 선양 주재 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서 위조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했는지, 개입했다면 어느 선까지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봄맞이 꽃축제 11일 오전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이벤트 매장에서 열린 새봄맞이 화훼축제에서 아이들이 화분을 들고 웃고 있다. /농협유통 제공

재활용 미술품 전시 11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린 재활용 미술 작품 '쓰레기와 소풍가기' 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소방관 하반기부터 3교대

소방관을 과로로 내모는 2교대 체제가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서울시는 11일 하반기부터 23개 모든 소방서에서 3교대 근무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68명을 증원해 19개 소방서에 3교대 체제를 구축했고, 올해 상반기에 157명을 더 뽑아 나머지 4개 소방서에서 근무체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2교대 근무에서 소방관들은 주당 84시간에 이르는 격무에 시달렸고, 이런 열악한 근무 여건은 진화 작업 지연과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3교대 체제에서는 근무시간이 주당 56시간으로 줄어 업무 집중도가 향상되고, 초동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실제 소방관 순직 인원은 2교대였던 2004~2008년에 10명에서, 3교대 도입이 본격 추진돼온 2009~2013년에 2명으로 감소했다. /윤다혜기자

서울 상가임대 평균 1.7년 불과

서울 시내 상가 임대 기간이 평균 1년7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최장 계약보장기간 5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상권일수록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대개 첫 계약 땐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후 임대료가 계속 올라 법적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초기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떠밀려 나가는 상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4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서울 시내 상가의 환산 보증금은 1곳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증액 기준도 '증액 청구 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다주택 고율세금 부당" 판결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했다고 간주돼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낸 김모(57)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대체 주택을 취득해 장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됐더라도, 이는 주거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공소시효 두달남긴 강간범 붙잡혀

10년 전 미성년자 강도강간범이 공소시효 2개월을 남겨두고 DNA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5월 대구시 달서구 본동 한 카센터에서 당시 17세이던 다방 여종업원 이모양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10년 전 범행은 지난 1월 이씨가 경남 창원과 대구 등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를 붙잡기 전 이씨가 범행 현장에 흘리고 간 장갑을 확보,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DNA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10년 전 미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씨의 공소시효는 10년 가운데 불과 2개월을 남겨둔 상태다.

/안용기기자 kahn@

강북구 소식지 명예기자 위촉

서울시 강북구는 10일 제6기 강북구 소식지 어린이 명예기자 26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소식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학교 소식, 마을과 이웃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한번에

서울시 도봉구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한번에 처리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란이 전입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립의료원 이전 반대 회견

서울시 종로구는 10일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최창식 중구청장이 참석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구청장은 이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대책안을 요구했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박상철

발레리노 니진스키 출생
'춤의 신'으로 불릴 만큼 유명했던 러시아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바슬라프 니진스키가 1890년 3월 12일 태어났다. 17세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황실발레학교를 졸업한 뒤 곧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세르게이 디아겔레프의 러시아 발레단에 들어가 파리에서 첫 공연을 가진 후 전설적인 도약과 뛰어난 연기로 세계 최고의 남성무용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신분열증으로 불과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무용계에서 은퇴하고 말았다.

김포 주변 고도완화 "이상 무"

연구용역 결과 "비행 안전 영향없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부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 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 해발 119m(아파트 26층 높이)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현행 고도 제한 57.86m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노현송(사진) 강서구청장은 1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고도 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 1월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고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는 항공학적 검토와 법률적 검토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됐다.

항공학적 검토는 김포공항에서 1.5㎞ 떨어진 강서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시계·계기 비행 절차의 영향, 활주로 사용 가능 거리의 영향,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의 영향 등 14가지 항목에 대한 항공 안전 유무를 따졌다.

연구 결과 마곡지구는 해발 기준 119~162m까지 장애물은 항공기가 비행할 경우 시계비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기준에 따른 기존 계기비행 절차에 관한 연구에서도 176~209m까지 고도는 항공기 계기비행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강서구 전체면적의 64.7%에 달하는 수평 표면(활주로 반경 4㎞ 이내, 해발 57.86m) 제한 지역은 일률적으로 119m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도 비행 안전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률적 검토는 국제 기준과 동떨어진 고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가 아닌 항공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노 구청장은 "국토부, 국회, 청와대 등에 고도 제한 완화를 청원하는 30만 주민 서명운동도 마무리했다"며 "연구용역 결과와 서명부를 제출해 강서구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헤어진 여친 스토킹하다 살해

'다시 사귀자'며 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이 범행 3개월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고려대 2학년 이모(20)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송치됐다.

두 사람은 같은 과 동기로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으나 이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괴롭혔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7일 이씨가 학교 근처 A씨의 하숙집 앞에서 기다리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A씨를 따라서 방에 들어갔다. A씨가 이씨에게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소리치자 순간 격분한 이씨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인 재작년 초에도 전 여자친구를 길에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다산콜센터 성희롱 6명 고소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을 경고 조치 없이 즉시 검찰에 고소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 조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한 6명과 폭언·욕설·협박을 한 1인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총 7명을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상담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120다산콜센터 악성 민원인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희롱한 사례를 보면 "아줌마 나랑 ○○○ 뜰래?" "♥ 아가씨 몇 살이야? 나랑 잘래?" 등 음란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

한편 하루 평균 31건씩 걸려오던 악성 민원 전화는 강화 대책 추진 후 일평균 20건으로 35%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김민준기자

산재예방사업 개편방안 내놔

안전보건공단은 7일 울산 혁신도시로의 본부 이전에 따른 개청식을 갖고, 산재예방사업 개편안을 통한 산재 예방 중심 기관으로 재도약을 준비한다.

공단이 내놓은 산재예방사업 개편안은 크게 ▲현장성 강화 ▲적시성 향상 ▲효과성 극대화로 나눌 수 있다.

산재예방사업 개편 방안은 지난해 재해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관리가 산업 현장에 효율적으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봄맞이 중랑천 청소 11일 오전 서울 중랑천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관계자들이 새봄맞이 중랑천 오물 수거 및 수변 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들 의약품 늑장 결제…평균 8개월

<1면에서 계속>

◆누구에게나 갑이 되는 병원

또 병원은 도매상을 상대로 언제나 '늑장 결제'를 일관해오며 갑의 위치에서 군림해왔다. 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약값을 받아야 하지만 평균적으로 8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결제를 하는 관습이 만연해 있다. 올 2월 이를 개선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이 역시 무산됐고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특별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도매상이 병원에 항의할 수는 없다. 결제를 받지 못하면 도매상은 생존을 위협받지만 참고 넘어가야 다음에도 의약품을 공급하는 갑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병원은 의약품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금융 이자 소득을 부득이하게(?) 챙기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는 순간 환자는 철저한 을이 된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을', 환자가 '갑'이 돼야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고객인 환자가 갑이 아닌 을의 위치에 선다. 특히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나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해서다. 정부가 출범시킨 한국의료사고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강제 조정이 아닌 임의 조정에 그치고 있어 물증이 없는 환자는 언제나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게 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의붓딸 살해 계모 사형구형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11일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여덟 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가슴·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없이 때리고 발로 찼다"면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박씨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다혜기자

장애아들 업고 매일 등교 '감동'

중국 아버지, 바구니 등 만들어 14km 왕복

장애 아들을 업고 매일 등굣길에 오르는 중국인 아버지의 애끓는 부정이 전 세계 네티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팔·다리와 허리가 굽은 아들 샤오장(12)을 업고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위쉬캉(40)의 이야기를 전했다.

위쉬캉은 매일 아침 '행군'을 시작한다. 몸이 불편한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다. 그는 9년 전 아내와 헤어진 뒤 학교 교육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엄마 없이 자란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가 사는 쓰촨성 이빈시 펑이 마을 주변의 교육 환경은 열악했다. 아들을 받아주겠다는 학교도 없었지만 걷기 어려운 아들의 등하교에 반드시 필요한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도 없었다.

위쉬캉은 결국 '바구니 버스'를 만들었다. 아들을 바구니에 넣고 등에 매 학교까지 데려다주기로 한 것이다. 그는 점심 도시락까지 챙겨 아들을 등에 태우고는 학교까지 걸어간다. 지난해 9월부터 벌써 7개월째 바구니 버스 운전사로 아들과 함께하고 있다. 아들의 등하교를 위해 14km를 걷고, 집으로 돌아와 일을 하고 다시 학교에 가느라 또 같은 거리를 걷는다.

위쉬캉은 "내 아들은 장애가 있지만 정신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도 집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모두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펑이 초등학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은 혼자 걸을 수도 자전거를 탈 수도 없다. 열두 살이지만 키가 90㎝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반에서 공부는 가장 잘한다"면서 "내 꿈은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바구니에 넣고 등에 맨 채 걷고 있는 위쉬캉. /데일리 메일

대지진 흔적 사진전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휩쓸고 간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11일 센다이시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다. 이 사진들은 16일까지 전시된다. 지진 발생 3주년인 이날 일본 각지에서는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다. /AFP 연합뉴스

도난여권 항공권 이란서 예약

항공기 기체 수색 별무 성과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도난 여권으로 탑승한 승객 2명의 항공권은 이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돼 태국에서 구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리아인의 여권을 훔쳐 사용한 탑승객 2명의 항공권이 이란에서 온라인으로 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태국 경찰이 전했다. 이 이탈리아인과 오스트리아인은 각각 2013년과 2012년 태국에서 여권을 분실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도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승객 2명의 항공권은 '알리'라고 불리는 이란인이 예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럽 언론은 알리가 예약한 항공권으로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유럽 밀입국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사건이 테러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한 해 2200만 명 이상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연간 1000여 개의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난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법 집행이 허술해 여권 등 신분증이 자주 위조된다.

남중국해에서 사라진 항공기의 기체 수색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 해군이 부근 해역에 첨단 구축함을 파견, 정밀 수색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다.

보반 뚜언 베트남 인민군 참모차장은 "기체 수색에 성과가 없어 수색 범위를 사고기의 예상 항로 동쪽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길에서 새끼 식인악어 발견 '화제'

metro Russia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한 주거지역에서 최근 새끼 식인 악어가 발견돼 화제다.

악어를 처음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이른 아침 동네 쓰레기통 주변을 쓸던 중 기어 다니는 물체를 봤다"며 "처음에는 누군가 내다버린 악어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악어 인형'이 갑자기 눈을 뜨며 꼬리를 퍼덕였다"며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얼마 후 관할 구역 책임자인 루슬란 미트로파노프가 현장에 도착했다. 미트로파노프는 "이 새끼 악어가 몸집이 크지 않은 애완용 악어 카이만이라 생각하고 애완용으로 키울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레닌그라드 동물원의 확인 결과 몸집이 4m까지 자라는 나일강의 식인 악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악어의 이름을 겐나디 루슬라노비치 그라즈단스키로 지었다"며 "그라즈단스키는 이틀 만에 돼지고기를 두 덩이나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끼 악어가 어떻게 해서 주거지역에서 발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라즈단스키의 향후 운명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 악어는 조만간 페테르부르크 내 아쿠아리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알료나 보브르비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대학생들 노숙하며 기부 캠페인

metro Canada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대학생들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길에서 먹고 자는 이색 캠페인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5일간의 떠돌이 생활'이라는 캠페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다. 20~60명의 학생들은 오는 14일까지 길에서 먹고 자며 돈 없이 생활하게 된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충당해야만 한다.

이 캠페인은 몬트리올비즈니스스쿨, 퀘벡대, 맥길대학, 컨커디어대학 등 캐나다 대학 27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몬트리올에서 기부금으로 4만 달러(약 4264만원)가 모였다. 모인 돈은 젊은 노숙자 및 여성들을 돕기 위해 쓰인다.

/로잔느 레우종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영국 해리왕자 여친과 공개 데이트

영국의 해리(30) 왕자가 여자친구인 크레시다 보나스(25)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함께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0일 런던 외곽에서 열린 6개국 럭비 대회에서 해리 왕자와 보나스가 관중석에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보나스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해리 왕자와 나란히 앉아 잉글랜드 팀을 응원했다.

해리 왕자와 보나스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공개 데이트를 즐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데이트를 두고 두 사람의 약혼이 임박했거나 왕실에서 둘의 관계를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1963.87 (+9.45)

코스닥 547.68 (+5.49)

금리(국고채 3년) 2.8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65.00 (−1.20)

뉴스&뉴스

롯데마트 '도다리 회' 할인 1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도다리 세꼬시와 회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두 제품을 시세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가계대출잔액 1년만에 감소

●가계대출 잔액이 12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685조190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월 687조1864억원보다 1조9957억원 감소한 것이다. 전월 대비 액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계절적인 요인과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이공계연수기관 38곳 지정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기술사회는 2014년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위해 연수기관 38곳을 지정하고 전문 기술연수에 참여할 연수생 2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생 모집은 대졸자(2년제 이상)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성 이공계 인력과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된다.

연수생들은 연수 기간 동안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갖게 되며 연수 기간 동안 월평균 36만원가량의 연수 수당을 지급받고, 기업연수를 지방소재에서 받는 경우 월 2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이재영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1920조 시장' 관세 뚫린 한국차

8년8개월 협상 끝 캐나다와 FTA 타결…축산농가 타격 불가피

1조8000억 달러(약 1920조원) 세계 11위 거대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통상회담을 열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8년8개월 만이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선진 8개국(G8) 회원국이자 2012년 세계은행 통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조8000억 달러의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한·캐나다 FTA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 개방을 확보하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을 내줬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초 타결된 한·호주 FTA와 유사하다.

다만 호주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까지 2030년께 무관세로 일제히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돼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에서도 최대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對)캐나다 자동차 수출액은 22억2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2.8%를 점한다.

캐나다는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17년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캐나다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보다 우위에 서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멕시코산 자동차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미국 44.5%, 일본 33.6%, 한국 12.0%, 유럽 9.9% 등이다. 이 외에 관세율 6%인 자동차 부품은 3년 내, 7%인 타이어는 5년 내 관세가 사라져 자동차 관련 품목이 전반적인 수혜 품목으로 분류된다.

평균 관세율 5.9%인 섬유도 대부분 3년 내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원산지 기준이 한·미 FTA의 원사 기준 방식(얀포워드)에서 다소 완화됨에 따라 일부 수입산 원사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산으로 인정돼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 밖에 냉장고(관세율 6%), 세탁기(8%), 섬유·화학기계(6.5~8%) 등의 관세도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돼 현지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농축수산물 부문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양허 제외, 즉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11개 품목이다. 꿀, 대두, 맥아, 보리 등 11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하지만 최대 관심 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해 축산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전기차 '쏘울 EV' 148km 논스톱 기아자동차는 11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올 4월 출시 예정인 쏘울 전기차 '쏘울 EV'를 공개했다. 지난해 출시한 '올 뉴 쏘울'을 기반으로 개발된 쏘울 EV는 27kWh 고용량 리튬이온배터리를 장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148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NH농협 이달말 우투증권 인수 마무리

우리금융저축·아비바생명 패키지 가격 협상중

NH농협금융지주가 예정대로 이달 말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농협금융과 우리금융지주는 우투증권 인수 패키지(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아비바생명)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 작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 우리금융의 사외이사진이 새롭게 구성되면 지지부진한 우투증권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조만간 임기를 마치는 사외이사 5명은 패키지 방식의 매각을 받아들이면서 헐값 매각의 배임 논란에 휩싸였지만 새 이사진은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신규 이사진이 가격 조정 등에 대해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다. 농협금융은 우투증권 패키지에 1조1000억원가량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더 낮은 가격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금융저축은행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두 금융지주 간 시각이 매우 엇갈린다.

농협금융은 이 저축은행 인수가를 400억~50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반면 우리금융은 이 저축은행 인수와 회생에 2000억원을 투입한 상황이라 농협의 제시 가격을 받아들이면 배임 우려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이 최근 인수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우투증권 인수가 확정 단계에 들어설 것이란 기대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초 30여 명의 인원으로 발족한 농협금융의 인수 후 조직통합(PMI) 추진단은 우투증권 인수가 확정되는 대로 향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PMI 추진단에 따르면 우투증권이 자회사로 편입돼도 당분간 농협증권과 별도로 운영되며 사명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인수 기한을 정해놓진 않았으나 이달 말 인수 확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1@

빠뜨린 연말정산 5월에 신청 기회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던 직장인들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 전산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 각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 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재작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 마련 공제 폐지, 장기 주식형 저축공제 일몰 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정청구 기간 3년과 고충 민원 신청 기간 2년을 더해 5년 이내인 2019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자나 연말정산 담당 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가 꽤 많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지기자 minji@

비수술 디스크 치료

지긋지긋한 허리, 목 통증, 디스크 질환 비수술 치료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고주파 수핵감압술"은 강남초이스병원과 상의하세요!

10분 정도의 고주파 또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치료하세요!

허리. 목 디스크는 고주파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 받으세요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및 세계인들이 치료 받는 유일한 대한민국 대표병원 강남초이스병원에서는 2010년 개원 이래 4년 동안 비수술 치료 중에서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시술의 특징은 국소마취 하에서 시술 영상을 보며 병변 부위에 고주파을 위치시킨 후 10여분 정도의 간단한 시술로 진행된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이 감압, 수축되어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호전 된다. 또한 신경성형술은 1mm 정도의 카테터를 디스크 질환의 병변부위 근처에 삽입한 다음 약물을 이용하여 눌린 신경을 풀어주면서 부종을 감소시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강남초이스병원에서 시행하는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은 직경이 작은 여러 카테터을 같이 사용하고 그 동안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디스크 질환의 증상에 따라 신경성형술과 적절하게 병행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료 가능하다. 단 증상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다.

수술이 두렵거나 고혈압,당뇨,노인 환자도 시술 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강남초이스병원과 상의하세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국소마취하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넣어 아픈 부위를 직접 들여다 보면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돌출된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쏘아 염증부위를 제거하면서 신경근 유착까지 없애고 디스크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이다. 이 부분 마취 시술은 직접 내시경으로 병변의 염증을 볼 수 있고 작은 병변까지 레이저로 제거하고 더불어 약물을 넣어 신경 염증과 붓기를 가라 앉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으로 인해 수술이 힘든 환자들도 시술 받을 수 있다.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흉터도 거의 안 남고 시술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시술 후 퇴원 가능하며 일반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 고려대상
1. 추간판 파열되지 않은 디스크 환자
2. MRI상 퇴행성 변화가 적은 환자
3.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로 효과가 적은 환자
4. 전신 마취 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
5. 고령자나 만성 성인질병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

시술후 염증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가 없거나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남초이스병원 척추 치료의 특징

강남초이스병원은 퇴원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로 척추 관절 질환의 재발을 막고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다양한 치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내원 환자의 질환에 따라 경막외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또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하며, 이후 재발 방지 및 원인 치료을 위해 척추 의사의 진단 후 환자의 질환별, 나이별, 증상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도수치료,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나아가 통합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척추 치료를 체계화시킴으로서 환자의 빠른 치료와 회복에 중점을 둔 비수술적인 치료 후 맞춤형 재활, 도수, 운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은 서울대입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홍대 지하철 입구에 강남초이스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여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와 체형클리닉(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 측만증 등)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척추 및 관절 도수치료클리닉, 관절 연골과 인대 재활치료클리닉, 체외 충격파 및 운동치료클리닉을 개설하여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가 빠른 비수술 척추 관절 치료를 첨단 장비로 합리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강남초이스병원의 척추/관절 비수술 치료	
〈척 추〉	〈관 절〉
1.경막외 신경성형술	1. FIMS 요법
2.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수술	2.체외충격파
3.고주파 수핵감압술	3.프롤로테라피
4.프롤로테라피	4.도수치료
5.근육 자극치료	5.운동치료
6.체외충격파 치료법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치료 고려 대상
1. 허리, 목 디스크
2. 허리,목 척추관 협착증
3. 척추 수술 후 재발된 통증
4. 전신 마취 또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환자
5. 고령자나 만성 성인질병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

시술후 염증 가능성이 있으며 재발 가능성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821-중-48706호

강남초이스병원

서울대점 02)875-2200 홍 대 점 02)336-2200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월요일 야간 9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일요일 : 오전 10시반 - 오후 1시반 (매월 2,4주)

손가락 빨던 텔레마케터 '생계 후유증'

영업 재개됐지만 아웃소싱업체 큰 타격… 카드측 급여보존 소극적

"이번엔 전세 보증금을 빼서 마련했지만 다음 월급은 제대로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카드사와 원만하게 합의해 정부가 정한 70% 정도라도 확실히 줄 수 있길 기다리고 있다"

텔레마케팅(TM) 전문 아웃소싱업체 대표 김모씨는 다음달이 오는 게 벌써부터 두렵다. 봉급날인 지난 10일을 간신히 넘겼지만 여전히 카드사와의 지불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텔레마케터들에게 휴가나 단축 근무를 권고하며 TM 영업이 주춤하자 그 피해가 텔레마케터와 아웃소싱 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 농협·현대·하나SK카드만 합의

대부분 아웃소싱 업체의 월급날인 지난 10일 농협카드와 현대카드, 하나SK카드만이 아웃소싱 업체들과 상담직원 지불 비용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농협카드는 텔레마케터들에게 직전 3개월 보수의 평균치를 지급했다.

현대카드는 상담직원 인건비의 90%와 도급비 80% 이상을 지원키로 해 평균 270만원 수준을 보장키로 했고 하나SK카드도 상담직원 인건비 150만원과 장비, 통신비 등 ASP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아웃소싱 업체 관계자는 "상담직원의 기존 월평균 급여는 실적수당을 합쳐 2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임대료나 통신비, 4대 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상담원 1인 기준 300만~350만원가량을 받아왔다"며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급여 70%를 지급하기 위해선 최소한 하나SK카드가 약속한 150만원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고용부 70% 권고에도 속수무책

앞서 금융당국은 고용노동부와 각 카드사, 여신협회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평균 70% 선에서 급여를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고용노동법 46조에 기업이 휴업할 경우 기존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들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카드사와 아웃소싱 업체 간의 책임 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일고 있다.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화 권유로 한 달 100만~200만원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임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임금 보전 협상 방안을 논의해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주택바우처 부정 사용땐 중단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이 이 돈을 임차료로 쓰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임차료의 목적 외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차 가구(세입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지급받겠다고 하면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곧장 급여를 전달할 방침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가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할 때도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적정한 수준의 주거급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자의 주거 상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적정성, 임대차 관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박선옥기자

KT·LG유플 회원도 'T쇼핑' 되네 모델들이 SK텔레콤의 'T쇼핑'을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으로 TV 홈쇼핑 방송을 시청하며 할인·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T쇼핑을 11일부터 통신 3사 고객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SKT 제공

삼겹살값 30% 급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미세먼지의 여파에 이어 나들이철이 본격화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 삼겹살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겹살 100 g 의 소매 가격은 평균 1800원대로 전년보다 31%가량 올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의 모습. /연합뉴스

해킹 당한 중개사협 거래정보망 6월 교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홈페이지 해킹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탱크21'을 이르면 6월부터 보안성을 강화한 신규 정보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탱크21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와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정보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돼 있다.

그러나 최근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탱크21의 정보도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다행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 결과 부동산 거래 데이터베이스(DB) 정보의 외부 유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옥기자

부동산 시장 왜곡하는 '엉터리 통계'

거래량 확인 시차 크고 실거래가 표현 불명확 현실적 대책 수립 방해

주택 거래량을 비롯해 실거래가, 미분양 현황 등 매주·매월 단위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 통계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잘못된 통계는 시장 왜곡이라는 문제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데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경우 엉터리 대책이 나올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매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택 매매 거래 동향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같은 3월 중순에 계약된 물건이라도 신고일에 따라 3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5월 거래 통계에 잡힐 수도 있는 것이다.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 최대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근거로 한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국토부가 공개한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 건수는 ▲1월 1213가구 ▲2월 3189가구 ▲3월 5466가구 ▲4월 6603가구 ▲5월 7677가구 ▲6월 1만237가구다.

정부는 2012년 말 취득세 감면 혜택 일몰과 함께 1~2월 '거래절벽'이 나타났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4·1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1월과 2월 통계에 잡힌 거래량은 2012년 11월과 12월 계약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1월과 2월에 거래된 주택은 3월과 4월에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절벽은 없었던 셈이다.

거래량과 함께 발표하는 실거래가 역시 같은 아파트라도 동과 향, 층에 따라 가격이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숫자만 보고 올랐는지 내렸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승' '강보합'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통계는 수요자들이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회복됐다고 착각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오인할 수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계 자체를 무시하기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재우 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별성이 강한 부동산의 특성상 하나의 지수로 평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나 수요자들이 너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급·수요 사이클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삼성 반도체 이번엔 '20나노 D램 혁명'

작년 세계 놀래킨 25나노 기술서 진화… 생산성 30% 높여 양산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세계 최초로 차세대 '20나노(1나노=10억분의 1m) 4기가비트 DDR3(Double Data Rate 3) D램' 양산에 나선다. 20나노 D램은 지난 201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25나노 D램보다 30% 이상, 30나노급 D램보다는 2배 이상 생산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독자 기술을 통해 기존 설비만으로 20나노 D램 미세화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고, 최소형 4기가비트 D램을 본격 양산해 메모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양산에 성공한 20나노 D램에 삼성전자의 신개념 '개량형 이중 포토 노광 기술'과 '초미세 유전막 형성 기술'이 동시에 적용됐다.

낸드 플래시는 셀(정보 저장의 최소 단위)이 트랜지스터 하나로 구성돼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D램은 셀이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 적층 구조로 구성돼 20나노 공정 미세화가 더욱 어려웠다.

삼성전자는 이런 D램 공정 한계를 독자 기술인 '개량형 이중 포토 노광 기술'을 통해 극복해 기존 포토장비로 20나노 D램은 물론, 차세대 10나노급 D램도 양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마련했다.

또 셀 캐패시터의 유전막을 형성하는 물질을 기존 나노 단위에서 옹스트롬(10분의 1나노) 단위로 초미세 제어해 균일한 유전막을 만들어 20나노에서도 우수한 셀 특성을 확보했다.

20나노 DDR3 D램 모듈은 PC에서 기존 25나노 대비 소비전력을 25% 절감할 수 있어 글로벌 IT업체에 최고 수준의 '초절전 그린 IT 솔루션'을 제공한다.

전영현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은 "저전력 20나노 D램은 PC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까지 빠르게 비중을 확대하며 시장의 주력 제품이 될 것"이라며 "향후 차세대 대용량 D램과 그린메모리 솔루션을 출시해 글로벌 고객과 함께 세계 IT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ksgit@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20나노 D램. /삼성전자 제공

'유럽 헬스케어' 한자리에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유럽연합 주최로 열린 '2014 헬스케어·의료기술 전시상담회'에서 폴란드 드라민스키 업체 관계자들이 휴대용 진단 영상 초음파 스캐너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기청, 청년사장 600명 키운다

'창업허브' 대학 5곳 추가

창업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에서 600명의 창업가를 육성한다.

중소기업청은 건국대·경기대·단국대·순천향대·원광대 등 5개 대학교를 추가 지정해 총 21곳의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402억원)보다 106억원이 늘어난 5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창업선도대학에서는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국 300여 개의 체험형 창업강좌를 개설·운영해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업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등 대학별로 지역의 창업 거점 역할을 한다.

아울러 창업 친화적 학제 구축(창업특기생·창업중점교원 육성·창업장학금), 학생 창업 지원 프로그램(창업 동아리 육성), 글로벌 해외창업(글로벌 적정 기술 창업·아이템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자율 특화 프로그램'도 연중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선도대학은 24일부터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창업넷(www.changupnet.go.kr)에 신청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주 대규모 시위

내일 이동사 제재 맞춰 '영업정지 철폐' 총결의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데 대해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주들이 13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 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집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규제와 관련, 협회 성명서 낭독 및 관련 종사자 연설, 요구 사항이 담긴 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 보상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그 내용을 청와대와 여야 정당,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 3사에 13일부터 각각 4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개사 동시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 이통 3사는 신규 가입자 유치 및 기기 변경 등이 금지된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관계없는 사물통신(M2M) 및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협회는 "이번 이통사의 장기간 영업정지는 30만 이동통신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고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며 "통신 시장의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 제재는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게 판명된 지 오래고 오히려 소상공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다. 누구를 위한 영업정지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 시장의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영업정지 즉각 철회▲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이동통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장기 영업정지로 인한 생계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달리는 애플 vs 입는 구글

새 SW 경쟁… 카 플레이·웨어러블 제조혁명 중점

글로벌 IT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차세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앞다퉈 새 제품을 내놓고 있다.

11일 애플은 아이폰을 업데이트하면 자신의 차를 '키트' 수준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운영체제(OS) 최신판 'iOS 7.1' 업데이트를 배포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차에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 플레이' 기능이다. 카 플레이를 지원하는 자동차에 iOS 7.1이 탑재된 아이폰5·5S를 연결하면 운전자는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전화번호부 검색,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및 부재 중 전화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애플 지도를 이용해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기능은 전용 차량 인터페이스나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 플레이 기능은 지금은 페라리,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의 일부 차종에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현대·기아차, 혼다, BMW, 포드 등의 신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하루 전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제조업체를 위해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2주 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한 것처럼 웨어러블 기기 제조업체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안드로이드의 늪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옷에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재킷'을 만드는 것은 물론 구글글라스나 삼성의 갤럭시기어와 같은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 손목시계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OS 덕에 화웨이, 레노버와 같은 중국의 로컬 제조업체들이 일약 글로벌 IT기업으로 도약했듯이 입는 컴퓨터 시장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삼성SSD 체험하세요 지난 10일 숭실대학교에서 진행된 '삼성SSD 슈퍼 스피드존' 체험 이벤트에서 대학생들이 기존 하드디스크와 삼성SSD의 성능을 비교해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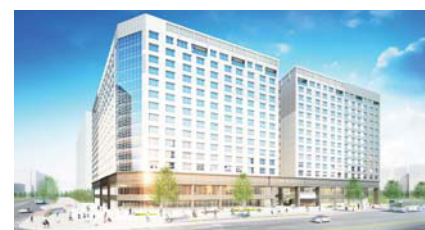
마곡 '디엠시티' 오피스텔 분양

대방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B7-3·4블록에 '디엠시티(the M CITY)'(사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디엠시티는 지하 5층~지상 14층, 전용면적 23~59㎡, 전체 1031실로 구성될 예정으로 마곡지구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황금 라인으로 불리는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을 단지와 직접 연결할 계획이며, 1km 범위 내 5호선 발산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예정)이 위치해 대중교통의 편리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인근 강변북로를 통한 여의도·도심 등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마곡지구 내 16만5000여 명을 배후로 원룸 및 투룸형 임대 수요가 풍부하며, 특히 신규 소형 아파트의 공급 부족 및 인근 가양동 소형 아파트의 노후화의 영향으로 '디엠시티' 스리룸 평면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옥기자

케이티렌털 할인 프로모션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렌털 서비스의 경제성 및 편의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1위 렌터카 브랜드 kt금호렌터카를 보유한 케이티렌탈(대표 표현명)은 고객에게 합리적 소비 방식으로서의 렌털 서비스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레저 인구 증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스톡 사이클링과 소상공인 창업을 돕는 안광학 기기, 디지털 인쇄장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야외 레저 활동을 준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리데이비슨과 스톡 사이클링 렌털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지난 2012년 상반기 렌털 서비스 출시 연도보다 384% 성장률을 기록한 할리데이비슨 상품은 2013년식 잔여 모델 기준 36개월 계약 시, 2014년식은 24개월 계약 시 특별 할인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로드킹 클래식' 모델을 36개월 조건 대여 시 월 68만8900원에서 월 64만5700원으로 렌털료 부담을 낮춰 이용할 수 있다. 16년 전통의 독일 대표 하이엔드 자전거 브랜드 스톡 역시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 서비스 기간을 확대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였다. /김태균기자

명품은 신는 순간!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조, 공급원 : 대호물산(주)

Pierre Cardin

pierre cardin
PARIS

피에르 가르뎅 정장용 신사화 출시!

수많은 신사화 브랜드 중에 피에르가르뎅이 명품으로 평가 받는 것은 전통과 기술력을 인정받는 글로벌 브랜드라는 점입니다. 오랜시간 연구, 개발하여 한국인 체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명품은 단시간에 만들어 질 수 없듯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에르가르뎅 브랜드의 명예를 생각하며 제품을 만듭니다. 우수한 재료와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어 격조 높은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의 명예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명품 '피에르가르뎅' 패션과 실용성으로 대중화 선언!

| 피에르가르뎅 전제품 6개월 이내 제품 하자 발생시 100% A/S 보장! |

명품 브랜드 피에르가르뎅이 새로운 신사화를 출시 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사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차별화된 디자인과 더욱 고급화된 재질로 글로벌 브랜드의 기술력으로 기존의 신사화와 완전히 차별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사화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최고의 기술력과 100%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기존 신사화보다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글로벌 브랜드의 최상의 디자인으로 기존의 신사화에 식상한 고객들의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출시기념 300분 한정 이벤트!
할인가 : 39,800원
(2켤레 구입시 : 69,800원)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신용카드 할부가능)

모델번호 PC - 908
정장용(블랙) / 재질 : 최고급 PU /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피에르가르뎅(PC)과 황토제화(V) 구입시 묶음배송가능 !

모델번호
PC - 901

정장용(블랙) / 재질 : 최고급 PU /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2

정장용(다크브라운) / 재질 : 최고급 PU/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3

정장용(다크브라운) / 재질 : 최고급 PU/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4

정장용(블랙) / 재질 : 최고급 PU /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5

정장용(다크브라운) / 재질 : 최고급 PU/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6

정장용(블랙) / 재질 : 최고급 PU /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7

정장용(다크브라운) / 재질 : 최고급 PU/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8

정장용(블랙) / 재질 : 최고급 PU /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09

정장용(다크브라운) / 재질 : 최고급 PU/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모델번호
PC - 910

정장용(다크브라운) / 재질 : 최고급 PU/ 뒷굽 : 3.5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품질과 품격으로 인정받는! 정품 황토제화 브랜드를 꼭 확인하세요!

특허받은 기능성 소가죽 키높이 수제화!

V =1켤레 : 39,800원 / 2켤레 : 69,800원

키높이 신사화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7cm 더 커보이며 가볍고 발이 편합니다.

신사화 제조전문업체인 황토제화에서 외형상 전혀 티가나지 않는 키높이 신사화를 출시하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신장이 작아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은근한 기쁨을 주고 있는 이제품은 6중 설계로 착화감이 우수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특히 황토를 첨가하여 심한 발냄새를 줄여 주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라 한다. 특히 황토발 신사화는 소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압봉을 내장하여 여타 신사화에서는 볼수 없는 건강과 위생적인 점을 부각하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보행시 발이 불편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쿠션감있는 안감을 내장하여 장기간 걷는 직업을 가진 분이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의 종사자들에게 더욱 유용하다고 한다. 기존 타사의 제품과는 다른 소가죽 소재를 사용하고 7cm의 키높이 효과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전혀 티가 나지않아 작은 신장의 사람들로부터 꾸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V - 1
키높이 신사화

정장용(블랙) / 재질 : 천연소가죽 / 뒷굽 : 7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V - 2
키높이 신사화

정장용(블랙) / 재질 : 천연소가죽 / 뒷굽 : 7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V - 3
키높이 신사화

정장용(블랙) / 재질 : 천연소가죽 / 뒷굽 : 7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V - 15
아도방
키높이 신사화

정장용(블랙) / 재질 : 천연소가죽 / 뒷굽 : 7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V - 16
아도방
키높이 신사화

정장용(브라운) / 재질 : 천연소가죽 / 뒷굽 : 7cm
사이즈 / 245~275mm / 할인가 : 39,800원

아직도 운동화 따로~ 등산화 따로 신으시나요? 이젠 하나로 해결하세요!
■ 등산, 낚시, 산악트래킹, 각종 레져활동, 아웃도어 슈즈

엠피스포츠 최고급형 (초경량 225g) 전천후 트래킹화

가볍고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일상화에서 전천후 스포츠화까지..

~~59,800원~~ → 1켤레 29,800원
2켤레 : 54,800원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모델명 M-1
(남녀공용)

칼라 : 오렌지(Orange)
사이즈 : 230~280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2
(남녀공용)

칼라 : 옐로우(Yellow)
사이즈 : 230~280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5
(남성용)

칼라 : 블루(Blue)
사이즈 : 250~275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6
(남성용)

칼라 : 그레이(Grey)
사이즈 : 250~275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8
(남성등산화)

칼라 : 그레이(Grey)
사이즈 : 250~275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인터넷주문: www.domo365.com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99-8171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농협 / 302-0018-6064-11 예금주 김 효 민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규모가 2050년이면 세계 8위에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보다 높은 8만6000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 연합회(전경련)는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를 개최, 회의에 앞서 한광옥(왼쪽 다섯째) 국민대통합 위원장, 이승철(왼쪽 여섯째) 전경련 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北 경제특구 건설 60조… 통일 전 선투자"

전경련 통일 논의 심포지엄

"국민대통합 먼저… 1억명 내수시장도 생겨"

최근 '통일 대박'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통일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국민대통합 심포지엄-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 대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통일 편익을 높여갈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또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 남북 간 통합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대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정부 주도로 시작된 통일 논의가 민간 경제계로 확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각계에서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60조원에 이르고,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독일 통일에 대한 경험을 발표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 통일 당시 통일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 통합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 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으로 진단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은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 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양 실장은 통일 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 보장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 내 기업 유치, 북한 주민의 북한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 통일이 되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 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

2050년 국민소득 8만6000달러 '세계 8위'

한반도 통일 경제효과 분석

"통일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11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에 대해 "통일은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하고, 내수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 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 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의 초점을 맞추고,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구상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 한국'이 경제강국 해법

홍 센터장은 남북한의 통일 필요성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찾아봤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경제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 세계경제는 대침체에서 벗어나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월드뱅크의 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의 장기 성장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1980년대 2차 오일쇼크(3.2% 성장),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3.1% 성장), 2000~2007년 골디락스 시대(4.2% 성장), 2007~2010년(2.5% 성장)에 이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있는 것.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있고, 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970년대 9.4%, 1990년대 7.0%대에 이르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3%대로 급락한 상황이다. 특히 실제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하회해 2012년 2.0%, 2013년 2.8%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와 전세가가 급등하고, 건설·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며, 고용불안 등으로 중산층 비중도 2010년 72.8%에서 2060년 49.7%로 하락할 전망이다. 여기에 남북 관계의 불안정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주가 하락·원화 환율 상승·신용부도스와프(CDS) 금리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 센터장은 이에 따라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남북 경협 활성화와 통일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광물자원 연 154억달러 수입대체

홍 센터장은 통일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8위에 오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보다 높은 8만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통일 한국은 인구 7400만 명을 보유한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5년 1조643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77억 달러, 2030년 3조2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40년 4조9560억 달러로 증가해 영국과 독일을 추월하고, 2050년엔 6조56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다.

○ 통일한국의 미래상 종합표

		한국	통일한국
인구와 인구밀도	인구 (2050년)	4,710만 명 (세계 41위)	7,350만 명 (세계 26위)
	생산가능 인구 (2050년)	54.0%	58.0%(4%p 증가)
	인구밀도 (2050년)	1㎢당 473명	1㎢당 334명
경제성장	명목GDP (2050년)	4조 730억 달러	6조 560억 달러 (세계8위)
지하자원	북한의 유망 광물자원	2011년 기준 연간 153.9억 달러 수입대체효과	
재정	군사비 절감 효과	2013~50년까지 누적액은 1조 8,862억 달러	
문화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10건 (세계 21위)	12건 이상 (세계 19위)
스포츠	하계 올림픽 순위	종합 10위권	종합 5위권 이내
국력	국력지수 (2050년)	1.12 (세계 14위)	1.71 (세계 10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통일한국의 미래상 :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적 부상」 2012. 8.

내년에 통일이 이뤄지면 1인당 GDP는 2만2000달러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2020년에 2만8000달러, 2030년 4만3000달러, 2040년 6만6000달러, 2050년 8만60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영국·러시아·프랑스·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홍 센터장은 통일 후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북한 경제 재건 ▲북한 주민 지원 ▲제도 통합과 함께 ▲사회 혼란 ▲이념적 갈등 ▲남북 주민 간 이질감 등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인 통일 편익에 비해 한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남북 통일 시 한국이 필요로 하는 지하 자원의 절반을 북한 광물 자원으로 조달해 연간 153억 9000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의 잠재 가치는 한국의 24.3배인 3조9033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특히 통일 한국은 군사 통합에 따라 2013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1조8862억 달러의 국방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문화·스포츠 측면에서도 통일 한국에서 남북 단일 팀은 하계 올림픽에서 종합 5위 이내의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국력지수는 1.94로 세계 10위에 오른다. 전체 GDP·인구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한 지수다. /김태균기자

<토크 콘서트>

'김제동 토콘'도 이 남자 작품

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 임팩트' 한동헌 대표의 끼 넘치는 경영

"남들이 '신의 직장'이라 부르는 대학 교직원을 그만두고 이곳에 지원했습니다. 강연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똘기' 충만한 동료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노홍철보다 활력 넘치고 참신한 돌아이 기질로 삭막한 현대인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겠습니다."

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임팩트'의 채용 오디션이 열리는 강당. 면접자들의 7분 PT가 한창이었다.

임직원 50여 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면접 평가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동헌(33·사진)대표는 "한 사람을 뽑더라도 모든 직원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지원자 인생의 소중한 시기를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대표로서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를 주제로 탄생한 마이크임팩트는 창업 4년 만에 1700회가 넘는 강연을 진행하며 110만 명이 넘는 청중과 호흡했다.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는 마이크임팩트 소속 강연자로서 제2의 삶을 시작했다. 작가 알랭 드 보통, 세계적 석학 제러미 리프킨도 마이크임팩트 무대에 섰다. IT와 뷰티 등 단기 강좌인 '마이크임팩트 스쿨'은 자기 계발에 관심 많은 직장인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한 대표는 "강연 듣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 시절 수업 빼먹고 명사 강연을 들으러 다녔다"면서 "책과 달리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좋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 말했다. 또 "현대인들의 정신적 빈곤이 커지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신적 허기를 채우려는 현상이 늘고 있다"면서 "대부분 '강연을 듣자'에서 시작해 '좋은 강연이면 돈 내고라도 듣자'에 이어 '나도 강연을 하고 싶다'란 꿈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보스턴 컨설팅 그룹 한국지사에 들어갔다. 모두들 선망하는 회사였지만 강연에 대한 허기까지 채울 수는 없었다. 그는 회사원 신분으로 일회성 강연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김제동, 장기하 등 11명의 연사를 초청한 토크 콘서트는 대성공이었다.

마이크임팩트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의 모습. 계단에 붙은 문구는 직원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손진영기자 son@

한 대표는 "수익 면에서는 마이너스였지만 사람들의 큰 호응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강연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인이라 강연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하려 했지만 여기저기서 비즈니스 업무 요청이 왔다"면서 "이것이 바로 비전과 콘텐츠의 힘인 것 같다"고 웃었다.

그는 직장 생활 3년 만에 사표를 내고 2010년 마이크임팩트를 차렸다. 한 대표의 이야기를 접한 독지가가 자신이 소유한 종로 보신각 옆 건물의 한층을 1년간 무상 임대해 주겠다고 나서 마이크임팩트는 종각역 역세권에 번듯한 사무실도 갖게 됐다.

한 대표는 "12층 50평대에서 시작한 마이크임팩트는 현재 11층, 12층, 13층, 옥상까지 사용하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마이크임팩트는 15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지식 콘퍼런스를 준비 중이다. 역대 강연들의 디지털 콘텐츠 작업과 강남지점 추가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점점 나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느낀다"면서 "강연 문화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매너 나쁜 구직자 절반 무조건 탈락

갈수록 험난해지는 취업 관문을 통과하려면 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532명을 대상으로 '취업 예절을 지키지 않는 구직자에게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89.5%가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다. 이들 중 45.6%는 취업 예절을 지키지 않는 구직자를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밝혔다.

불이익을 주는 이유로는 '입사 후 근무 태도를 짐작할 수 있어서'(74.8%, 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회생활의 기본이 안돼 있어서'(54.6%), '인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라서'(49.4%), '개인의 사회성을 드러내는 거라서'(33%), '회사의 인재상과 맞지 않아서'(28.6%), '쉽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16.6%) 등의 순이었다.

취업 예절을 갖추는 것이 스펙 등 자격 조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54.7%)라는 응답이 '아니다'(38.7%)보다 더 많았다.

실제로 구직자의 비매너 행동에 불쾌했던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인사담당자도 86.3%에 달했다. 이들이 꼽은 최악의 구직자 행동은 '갑자기 면접 불참'(63.8%, 복수 응답)이 차지했다. '전형 중 갑자기 연락 두절'(48.1%), '통보 없이 돌연 입사 포기'(40.5%) 등을 거론한 인사담당자도 많았다.

/이국명기자 kmlee@

15일 파고다평생교육센터 삼성그룹 SSAT 무료 특강

삼성그룹에 입사하길 원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파고다교육그룹 평생교육센터는 15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 파고다타워 7층에서 2차 '삼성SSAT 무료특강'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SSAT 강의 전 타임 15회 연속 마감을 기록한 취업계의 스타 강사인 이시한 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SSAT의 출제 경향 및 최신 빈출 유형 분석은 물론 직무적성검사 학습 노하우도 들을 수 있다. 파고다어학원홈페이지(www.pagoda21.com)에서 신청하면 선착순(300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 시간적 문제 등으로 현장 특강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고다TV '특강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투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⑭

청중 한 명에 질문하면 100명이 집중

성공적인 강의는 청중을 몰입시킨다.

청중을 끌어당기는 강의의 첫 단계는 시선 집중이다. W스피치 협조로 명강사가 되기 위한 체험을 해봤다.

우선 인사를 크게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로 운을 띄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을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요즘 어떤 드라마 보세요?"라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문을 여는 식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답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답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강의자가 특정 인물을 지목해 질문을 하는 것도 요령이다. 지목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게 되고, 주변에 앉은 청중까지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많이 들면 이해도는 높아진다.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전에는 대부분 남자 주인공이 재벌 2세였는데 요즘은 요리사, 전문직부터 외계인까지 매우 다양합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다. 사례는 청중이 가깝게 접하는 내용일수록 유용하다. 강의 준비를 할 때 청중 분석도 수반되어야 하는 이유다. 청중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감안해 강의를 준비하면 청중의 반응도 커진다.

강사의 옷차림과 제스처도 중요하다. 복장은 정장이 신뢰감을 주며 구두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 강의를 하면서 움직일 때 청중들은 강사의 발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 이때 신발이 돋보이므로 단정하고 깔끔한 구두 착용이 전문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제스처는 클수록 자신 있어 보인다. 강연자가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라면 제스처를 큼직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소리는 크고 힘이 있어야 한다. 강사가 자신 있어 보이면 청중은 내용을 떠나서 그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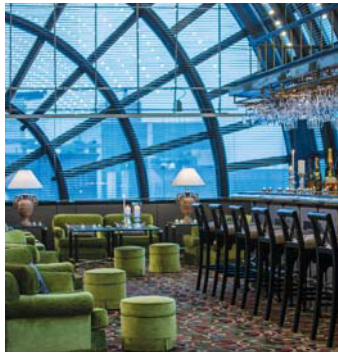
/unique@

‘낭만 5코스’ 와인·초콜릿 선물

르네상스 서울 호라이즌 14일 화이트데이 스페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에서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오는 14일 딱 하루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클럽 호라이즌은 연인들이 특별한 날을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5코스 스페셜 메뉴를 준비하고 메뉴 주문 시 웰컴 칵테일과 커플 레드와인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한다.

화이트데이 스페셜 메뉴는 아보카도를 채운 게 다리 살과 체리토마토 모짜렐라 샐러드, 구운 아몬드를 넣은 완두콩 크림수프, 파르메산 치즈를 곁들인 시금치 샐러드와 구운 버섯, 호주산 소고기 안심과 왕새우 구이, 딸기를 곁들인 초콜릿 무스 등 총 5코스로 준비됐다.

이날 모든 커플에게는 특별 포장된 초콜릿 1박스가 선물로 증정되며 감미로운 음악도 선사될 예정이다. 화이트데이 스페셜 메뉴 가격은 1인당 8만5000원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제주신라호텔 “봄여행 옵서예”

스프링 모먼트 패키지 S카 무료대여 등 알차

제주신라호텔은 제주의 자연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스프링 모먼트(Spring Moment)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이용 고객에게 호텔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S카(최대 6시간)를 타고 제주의 해안가와 자연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호텔 6층에 위치한 라이브러리 콘셉트의 라운지 S에서 다양한 책을 보며 밤 12시까지 음료와 다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제주신라호텔 3층 테라스에서는 매일 밤 와인 파티가 열린다. 패키지에는 테라스 와인 파티 2인 입장권이 포함돼있다. 은은한 조명과 플라워 데커레이션이 일품인 테라스에서 야자수가 우거진 야외 스파 존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하며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일 밤 12시까지 야외 온수풀과 자쿠지에서 달빛 수영과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숨비 스파 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이용, 더 파크뷰 조식 2인 등 풍성한 혜택이 준비돼 있다. /정혜인기자

화이트데이엔 ‘남편보다 김수현’

스미후루, 주부 1000명 설문

국내 주부들이 ‘화이트데이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으로 ‘별에서 온 그대’의 주연 ‘도민준’을 연기한 김수현(사진)을 1위로 꼽았다.

글로벌 청과기업 ‘스미후루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20~40대 주부 1058명을 대상으로 ‘화이트데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화이트데이를 함께 보내고 싶은 남자 연예인’으로 김수현이 절반에 육박하는 48%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드라마 ‘감격시대’의 김현중(27%), ‘상속자들’의 이민호(11%), ‘쓰리데이즈’의 박유천(5%), ‘태양은 가득히’의 윤계상(2%)이 2~5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벌인 ‘결혼 후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20대 주부는 10명 중 8명(82%)꼴이었다. 30대 주부는 응답자의 절반(56%)이 ‘있다’고 답했다. 40대 이상에서는 ‘선물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주부의 비율이 35%였다.

주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묻는 질문에 20대는 ‘의류 및 액세서리’(47%)를 첫손에 꼽았다. 30대 주부 역시 ‘의류 및 액세서리’(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40대 이상에서는 ‘여행 및 자유 시간’(30%)이라고 답한 주부가 가장 많았고 ‘명품 잡화’ ‘용돈 및 상품권’ 등이 뒤를 이었다. /정영일기자

엄마표 에그 바·초콜릿 ‘와!’

간식 만들때 도움되는 용기·가전·믹스재료들

바빠진 개학 시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 아이의 건강을 챙기느라 엄마들은 정신이 없기 마련이다. 이런 엄마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한 간식을 빠르고 간편하며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월드키친은 코렐 스냅웨어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보관부터 요리·세팅까지 용기 하나로 모두 가능한 스토리지웨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선보였다. 코렐 스냅웨어는 천연 유리 소재인 ‘비트렐 유리’를 사용했다. 이 유리는 화학적 가공 과정 없이 3중 유리를 열과 압력만으로 압축해 내열성과 내구성이 강해 전자레인지·오븐 등 열을 가하는 조리 도구에 넣고 돌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밀폐용기와는 달리 꽃무늬 등 예쁜 디자인이 사용돼 오븐에 요리를 한 후 바로 테이블에 꺼낼 수 있어 실용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사냐 재료를 미리 보관해두었다가 오븐에 구워 바로 테이블에 낼 수 있는 등 바쁜 엄마들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눈길을 끄는 가전제품들도 있다. 롤리 ‘에그마스터’는 텀블러처럼 생긴 에그마스터에 달걀 1~2개를 톡 깨서 넣으면 5~8분 후 핫바 형태로 익은 에그핫바가 자동으로 완성돼 쏙 올라온다. 사용이 간편해 간단한 달걀 요리로 바쁜 아침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 때 유용하다.

식품업계는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고자 하는 엄마들을 위한 믹스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믹스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밀가루와 설탕 등 다양한 재료를 미리 알맞게 배합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간편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케이크·호떡·아이스크림 등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출시된 삼양 큐원 홈메이드 초콜릿믹스는 기존 빵류 믹스에서 벗어나 고급 생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홈메이드 제품이다. 초코릿믹스 1봉(150g)에 우유 40㎖를 넣고 저어준 다음 전자레인지에 1분간 조리한 후 냉동고에 1시간 동안 굳히면 완성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100% 청포도 발효 식초 CJ제일제당의 ‘쁘띠첼 미초 청포도’가 11일 오전 중구 동호로 CJ제일제당센터에서 100% 청포도 발효 식초 음료의 시음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쁘띠첼 미초 청포도의 출시와 함께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 원활한 수분 섭취를 위해 맛있는 100% 과일 발효 식초를 마시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CJ제일제당 제공

나홀로 파티 달래 줄 ‘화려한 들러리’

저도수 팩와인·냉동케익 화이트데이 싱글족에 딱

싱글족이 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화이트데이처럼 연인들의 날이 다가올 때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든 마음을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솔로족들의 특별한 하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고품격 식음료를 만나보자.

와인은 분위기를 내고 특별한 기분을 맛보고 싶을 때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다. 혼자 먹기에 한 병의 와인이 부담스러운 싱글족에겐 작은 사이즈의 팩와인을 추천한다.

국내 최초 팩와인인 보니또 코리아의 ‘상그리아’(사진)는 4.5도의 저도수로 술에 약한 여성들도 칵테일처럼 가볍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 제품은 ‘상그리아 화이트’와 ‘상그리아 레드’로 구성돼 있다.

아워홈의 ‘떠먹는 피자 핫멕시칸할라피뇨’는 부드럽게 씹히는 도우에 풍부한 치즈와 멕시칸풍의 소스, 매콤한 할라피뇨로 맛을 낸 떠 먹는 형태의 신개념 피자 요리다. 포크나 스푼으로 간편하게 떠 먹을 수 있는 파스타 형태로 전자레인지에 3분간 조리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청정원의 자연해동 냉동간식 ‘미니소프트케익’은 냉동 보관해도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먹어도 촉촉하고 쫀득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

수줍음 벗은 레이스 과감한 워킹

올 봄·여름 패션 핫아이템 로맨틱한 스타일링 요령

이번 꽃샘추위만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봄이 기다리고 있다. 따뜻해질 날씨만큼이나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결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즌 트렌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의류 브랜드들의 2014 봄·여름 시즌 런웨이를 보면 여성복의 경우 로맨티시즘이 강조된 '레이스(LACE)' 아이템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rsum)은 레이스 톱과 맥시 스커트를 통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발망(BALMAIN)에서는 플라워 패턴의 레이스 톱을 매치해 여성스러운 감성을 더했다.

◆파스텔 컬러로 레이어링 연출

보통 레이스 하면 하얀 색상을 떠올리지만 이번 시즌에는 파스텔 컬러와 플라워 패턴의 레이스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귀띔한다.

또 일반적으로 레이스 아이템의 경우 보디라인에 스타일의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레이어링에 있다고도 조언한다. 여성의 경우 레이스를 어떻게 스타일링하느냐에 따라 로맨틱한 룩은 물론이고 시크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망(왼쪽)과 폴 앤조에서 선보인 레이스 패션.

간단한 방법으로 레이스를 톤다운된 색상과 매치하면 실패할 확률이 낮으며 과한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만 피하면 레이스 스타일링에 있어서 반은 성공이다.

이지인 한섬 시스템(SYSTEM) 마케팅실 대리는 "레이스 아이템은 숨기기보다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이 한층 스타일리시해 보이며 올봄 트렌디한 룩을 완성하기 위한 아이템이다"고 말했다.

◆튀는 믹스매치·부담 줄인 포인트

이와 반대로 무난한 레이스룩이 지겹다면 믹스매치도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레이스 원피스를 래더 재킷과 매치해 펑키한 감성을 연출하거나 레이스 스커트에 스웨트 셔츠를 입어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폴앤조(PAUL & JOE)가 2014 봄·여름 컬렉션에서 보인 화이트 레이스 톱과 데님 셔츠의 조합도 눈여겨볼 만하다. 평소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더라도 레이스와 매치해 입으면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다. 만약 레이스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소매나 밑단에만 포인트로 레이스가 들어간 옷을 선택하면 된다.

단 액세서리나 가방은 컬러감이 있는 것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연출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다. 여기에 수수하고 청순한 메이크업보다는 입술이나 눈에 포인트를 준 컬러 메이크업이 포인트 레이스와는 어울린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세인트 패트릭의 날 축제 15일 디큐브 플라자 '손짓'

아일랜드 협회(www.iak.co.kr)는 '제14회 세인트 패트릭의 날 축제'가 오는 15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신도림 디큐브 플라자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세인트 패트릭의 날 축제는 아일랜드 국가에 기독교를 가져온 성인을 기리는 행사로 아일랜드 전통 무용과 인기 록 음악 등을 즐길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 펼쳐질 전통 무용 공연에서는 관중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아일랜드의 독특한 스포츠인 게일릭 축구를 서울 게일스 게일릭 축구팀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아이리쉬 마을'도 열린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서울우유 디저트 발효유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봄을 맞아 프리미엄 디저트 발효유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러뷰(이하 러뷰) 5종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러뷰 5종은 딸기·애플캐롯·오렌지자몽·사과·블루베리 등 과일 고유의 색상을 담은 잼과 요거트를 투명 컵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상단에는 흰색 발효유를, 하단에는 과일 잼 색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먹음직스럽게 색감을 연출했다. 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만든 100% 국산 원유와 분유를 사용해 믿고 먹을 수 있다.

이상진 서울우유협동조합 발효유마케팅팀 팀장은 "이번에 선보인 5가지 과일 맛 외에도 다양한 디저트 발효유를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제품 라인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면 뷰티박스 2000원에 증정

배스킨라빈스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구매하면 시크릿 뷰티박스를 2000원에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시크릿 뷰티박스는 겟잇뷰티박스 by 미미박스가 엄선한 최신 화장품 4종과 미미박스 5000원 할인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프로모션은 각 매장 내 준비된 뷰티박스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행사 참여 시 해피포인트 적립 및 타 쿠폰, 타 행사, 제휴 할인 등의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모바일 쿠폰은 사용 가능하다.

한편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10종도 새롭게 선보였다. 대표 제품인 '별 가득 숲 속 케이크'와 '해피캐슬'은 파스텔 색감이 두드러져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게 특징이다. 별 가득 숲 속 케이크 2만8000원, 해피캐슬 3만3000원에 판매된다.

/정혜인기자

봄날 러너 "가뿐한 비밀병기 모여"

기능성 운동화 쏟아지네

봄을 맞아 야외 운동에 필요한 기능성 운동화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휠라는 젤리를 연상케 하는 컬러감의 에스 웨이브(S-WAVE)2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해 '연재 워킹화'로 불리며 이목을 끈 에스 웨이브의 2014년 버전으로 디자인과 기능성을 강화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발 뒤굼치 부분에 특수 미드솔 '에너자이즈드 러버(Energized Rubber)'를 사용해 쿠셔닝을 좋게 했다. 이 미드솔은 워킹화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젝션 파일론(IP) 소재보다 약 1.5배 탄성이 좋아 강한 반발력으로 보다 편안한 워킹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중 쿠셔닝 시스템, 무봉제 공법인 퍼프 스크린(Puff Screen)을 적용해 착화감을 높이고 무게도 줄였다. 블루·다크그레이·라이트그레이·아이보리오렌지·핑크·민트 등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됐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워킹화 아치스텝 시리즈 6종을 출시하며 에펠·마블·웰링턴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웨어러블 헬스케어기기 아치스테퍼(Arch Stepper)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벌인다.

아치스테퍼는 밀레가 건강관리 전문업체 녹십자 헬스케어와 협업해 도보 수, 소모 칼로리, 목표 달성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한 건강관리 기기다.

아치스테퍼 출시와 더불어 공식 모바일 앱도 선보였다. 기기와 앱을 연동시켜 권장 걸음 수와 권장 섭취 칼로리 및 소모량을 알려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다.

아치스텝은 밀레가 지난 4일 새롭게 선보인 워킹화이며 중창에 삽입된 고탄성 소재 펄스가 탄성을 높여 건강한 도보를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아디다스와 리복이 일제히 신제품 러닝화를 선보였다.

아디다스의 스프링 블레이드는 6년의 제작기간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밑창에 하이테크 폴리머로 만든 16개의 고탄력 블레이드를 적용했다. 아디다스는 이 제품을 신으면 발밑에 스프링이 있는 것 같은 착용감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리복은 30~40대 직장인을 위한 러닝화 제트퓨즈 런을 출시했다. 고무창의 무게를 줄였고 나노웹(NanoWeb) 소재를 갑피에 사용해 통기성도 함께 향상시켰다. 또 솔기 없는 무봉제 갑피로 보다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

/김학철기자

교육
교사, 입시를 넘다
홍세화 외/우리교육

인문·교육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있는 강사 7명이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철학, 새로운 교육의 가치를 얘기한다. 또 책은 강사들의 이런 얘기를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왜곡된 사교육을 바로 잡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취미
리빙포인트
조선일보 리빙포인트 취재팀/비타북스

10년 넘게 살림을 해온 주부 9단도,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하는 초보 주부에게도 살림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다. 이에 책은 누구나 살림 고수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살림 기술을 담고 있다. 살림이 쉬워지는 깨알 같은 노하우를 만나보자.

경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
벤 버냉키/미지북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버냉키가 2012년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했던 강연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연방준비제도 창설에서부터 연준의 역사와 역할을 돌아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냉키 의장 자신이 펼쳤던 양적완화라는 독특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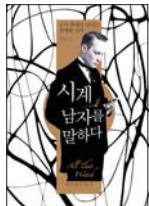
정치사회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
루크 하딩/프롬북스

전직 CIA·NSA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감행한 내부고발과 그 이후의 행보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치열한 정보 전쟁과 언론의 타협 과정이 소설처럼 쉽게 읽히지만 스노든이 던지는 메시지의 내용과 의미가 크다.

인문
평설 인물 삼국지
김경한/북오션

나관중의 '삼국지' 속 인물들을 재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삼국지가 유비의 촉한이 한나라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입장에 따라 역사와 인물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비는 조폭 출신 야심가로, 관우는 살인범에서 신이 된 남자로, 조조는 충신으로 설명하는 등 기존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다.

자기계발
무심코 좋은 생각
고야마 군도/위즈덤하우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순간이 너무 많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쥐어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자체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저자 고야마 군도는 말한다. 일상에서 놓쳐버린 우연 속에 답이 있다고 강조하며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노하우를 공개한다.

에세이
시계, 남자를 말하다
이은경/책이있는풍경

국내 여성들이 선호하는 수입 화장품 매출 신장률이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남성들을 위한 브랜드 시계 매장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아날로그 시계에 대한 남성 수요가 많은데 도움받을 시계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저자는 그간 모은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기계식 시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건강
강한 것이 아름답다
남세희·최영민/중앙북스

사진보다 글이 많은 운동 책이다. 여성 초보자부터 운동지도자까지지주 저지르는 실수를 유형 및 상황별로 나누고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책은 '좋은 자세'보다 '나쁜 자세'가 차지하는 분량이 많다. 혼자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자습서이자 지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교본이 될 것으로 저자는 기대한다.

역사
아프리카를 말한다
류광철/세창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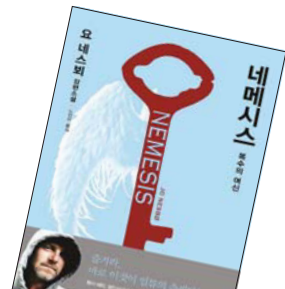
아프리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와 불확실한 전망의 대륙이다. 현재 주짐바브웨 대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를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두 자리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다른 아프리카를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오슬로의 겨울처럼 오싹

북유럽 스릴러 열풍 주도 '제2 라르손' 네스뵈 신간 스스로 "최고 플롯" 꼽아

네메시스 요 네스뵈/비채

전 세계는 지금 북유럽 스릴러 열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범벅이기보다는 서늘한 공포를 주는 사건들, 기나긴 겨울과 끝없는 눈의 섬뜩함, 선하지 않지만 지적인 주인공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북유럽 스릴러 열풍의 시작이었던 스웨덴 작가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 3부작은 30여 개국에서 6000만 부 이상 팔렸고 대니얼 크레이그가 주연한 헐리우드 영화도 성공을 거뒀다. 소설 외에도 덴마크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더 킬링'과 아이슬란드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콘트라밴드'도 미국에서 좋은 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핫'한 북유럽 스릴러 작가는 누구일까. 바로 북유럽 스릴러의 자존심, 제2의 스티그 라르손 등 화려한 별칭을 달고 다니는 요 네스뵈다. 그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잘나가는 스릴러 작가인데 그가 최근 해리 홀레 시리즈 4번째 작품인 '네메시스'를 출간했다.

책은 저자 스스로 '모든 것이 이 한 컷에 달려있으며 남은 이야기 전부를 지배할 첫 장면을 쓰고자 했다'고 말할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한다. "다들 삶의 의미를 궁금해할 뿐, 아무도 죽음의 의미는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총구를 눈앞에 두고 죽음을 직감한 인물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책은 오슬로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돼 있었고 범인은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나 이 다급한 상황에서 돈을 챙긴 범인이 창구 직원을 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건을 맡은 형사 해리 홀레는 이 불필요한 살인에 주목한다. 하지만 해리는 옛 여자친구 안나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가 이튿날 그녀가 죽은 채로 발견되자 사건의 용의자가 된다.

이처럼 저자는 은행 강도 사건과 예전 여자친구의 자살이라는 두 사건을 번갈아 진행하며 주도면밀한 이야기를 구축해나간다. 이전의 어떤 작품보다 플롯을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저자가 자신의 작품 가운데 플롯이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꼽기도 한 이유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거듭되는 반전의 반전은 독자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대담하고 정교하게 그려진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쓰러진 뉴욕 살린 심폐소생술

리브랜딩, 부상당한 뉴욕을 살린 심폐소생술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지옥같던 NYC가 후반 들어 관광의 천국이 된다. 아이 러브 뉴욕(I♥NY)이 첫번째 브랜딩이었다면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의 재건은 리브랜딩이다. 이제 더 이상 맨해튼 금융지구는 비즈니스맨들의 거래소가 아닌 선글라스를 낀 이방인들의 관광 명소가 됐다. –'뉴욕 비즈니스 산책'(엄성필/한빛비즈) 중 – /김학철기자 kimc0604@

야한 남자 마광수 '19금 아라비안나이트'

화제의 책

아라베스크 마광수/책읽는귀족

'아라베스크'. 마광수 작가의 신작 같지만 책은 오래된 아픔과 사연, 저자의 애정을 담고 있다.

1992년 봄 '알라딘의 신기한 램프'라는 제목으로 연재되기 시작했지만 같은 해 10월 소설 '즐거운 사라' 필화 사건으로 저자가 구속되면서 소설의 연재가 허무하게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수감 생활을 마친 1997년 후속편을 연재해 탈고했고 2000년에 이르러서야 소설을 하나의 책으로 출간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작품이라 저자는 재출간을 결심했고 이에 가장 재미있고 특이하며 날렵한 이야기만 모아 '아라베스크'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 저자가 직접 내용을 다시 한 번 손보며 환골탈태라는 뜻을 담아 제목도 아라베스크로 고쳤다.

특히 책에서는 야(野)한 소설가 마광수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야하지만 생각이 있는 풍경, 판타지의 신세계가 펼쳐지며 날카로운 정치적 풍자와 세상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에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동서양의 역사와 지식의 뒤안길에 숨어있는 이중적 패러다임을 파헤치는 저자의 모습과 아찔하면서도 재미있는 상상력의 다양한 색깔을 만날 수 있다. 팍팍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 잠시 쉬어가며 저자가 얘기하는 '가벼움의 미학'과 '솔직한 판타지의 구현'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성(性)적 아이콘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마광수식 아라비안나이트에 빠져보자. /황재용기자 hsoul38@

“촬영내내 하도 울어 살이 쏙 빠졌죠”

내일 개봉 ‘우아한 거짓말’ 주연 고·아·성

배우 고아성(22)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주관이 뚜렷하다. 남의 시선이나 성공을 의식하지 않고 그만의 길을 걷는다. 할리우드 톱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설국열차’의 차기작으로 ‘우아한 거짓말’(13일 개봉)을 선택한 것 역시 그런 주관 때문이다.

◆ 이번 영화로 답답함 풀어

‘설국열차’에서 열차에서 자란 소녀 요나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고아성은 이번 영화에서는 남에게나 가족에게나 무신경한 성격이지만 동생 천지(김향기)의 죽음과 관련된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감정의 변화를 겪는 여고생 만지 역을 맡아 섬세한 연기를 펼쳤다.

“요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독특한 캐릭터라서 연기하면서 답답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창 촬영을 하던 중에도 일상적이고 현실에서 공존하는 역할을 맡고 싶은 욕구가 커졌죠. 이번 영화에서 그때 느꼈던 답답함을 제대로 풀었어요.”

받아들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아역에서 성인으로 이미지 변신을 해야 한다는 강박은 피하고 싶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누군가의 딸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평소에는 진짜 엄마 같고, 연기를 할 때는 많은 가르침을 줬던 김희애와 호흡을 맞추는 일은 즐거웠다고 했다.

“일할 때나 집에서나 늘 막내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욕심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을까 하고 좌절하죠. 그럴 때마다 김희애 선배님이 다독여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줬어요. 한번은 연기와 관련해 제가 고집했던 오랜 착각마저 한순간에 허물어주셨죠. 한편으로는 연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진짜 엄마 같은 감정이 느껴져서 신기했어요.”

◆ 아역배우 고충 안 겪어

극중에선 힘든 과정을 겪는 여고생이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생활을 마음껏

‘우아한 거짓말’에 모녀로 출연한 김향기(왼쪽부터)·김희애·고아성.

배역에 몰입한 탓에 촬영하며 많이 울었다고 했다. 실제로는 언니만 둘인 데다 아역배우 출신이라 일할 때나 집에서나 늘 막내였지만, 이번 영화를 촬영할 땐 있지도 않은 동생이 진짜 죽은 느낌이 들었단다. 우느라 살이 쏙 빠졌을 정도다.

“실제 성격은 쿨한 만지와는 정반대예요. 만지는 동생이 죽고 나서야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만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언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 출연한 후로 언니와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가족과는 다 솔직하게 말하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 김희애 선배는 ‘연기 스승’

‘설국열차’에서 송강호의 딸을 맡았다면 이번에는 김희애의 딸로 나온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무 살이 넘은 나이에 연이어 어린 딸 역을 맡은 이유가 있을까.

이 질문에 그는 “난 성격이 과감함과는 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대학생이다. 성균관대 심리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최근 MT를 다녀왔다고 말하며 눈을 빛냈다.

2006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대작 ‘괴물’과 지난해 900만 관객을 넘은 할리우드 프로젝트 ‘설국열차’로 베테랑 배우들도 쉽게 경험하기 힘든 성공을 어린 나이에 경험했지만 자신을 여배우라고 의식하지 않는다. 학과도 또래 배우들이 주로 지원하는 연극영화과가 아닌 일반 학과에 진학했다.

“과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편이에요.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역배우 출신들이 겪는 고충에는 공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동안 주로 어두운 역할을 맡았지만 말하는 모습은 씩씩하다. 그는 “다음에는 밝은 역할을 하고 싶다. 상큼까지는 아니라도 씩씩한 인물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작은 바람을 내비쳤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동생 잃은 여고생 역할
섬세한 감정연기 표현
김희애 선배 엄마 같아
⋮
아역→성인 이미지 변신
강박은 피하고 싶어요
씩씩한 캐릭터도 욕심
”

싸이·이승환… 스타 가수 '컴백 대란'

이달 줄줄이 복귀 예고… 성룡이 키운 아이돌 JJCC도 데뷔 무대

가요계에 부는 '봄바람'이 심상치 않다.

1월 걸그룹의 '섹시 대란', 2월 보이그룹 '퍼포먼스 대란'에 이어 3월에는 거물급 가수들의 컴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와 2NE1이 동시 컴백으로 3월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승환과 싸이가 컴백을 예고하고 있어 신구 세대 간 접전도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걸그룹 포미닛은 오는 17일 미니 5집 '포미닛 월드'로 컴백을 앞두고 있으며, 성룡이 직접 기획한 남성 5인조 아이돌 JJCC도 K-팝 시장에 뛰어든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수는 싸이다. 싸이 컴백 소식은 국내 가요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2012년 '강남스타일', 2013년 '젠틀맨'으로 각종 음원방송은 물론 음원차트까지 평정했기 때문이다.

컴백 초읽기에 들어간 '월드스타' 싸이(왼쪽)와 17일 출시되는 포미닛 미니 5집 재킷.

이승환은 지난달 23일 정규 11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공개하고 3월 말 컴백을 예고했다. 지난 2010년 발표한 10집 이후 4년여 만에 내놓는 앨범이다. 평소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뮤지션으로 정평이 난 만큼 음악의 완성도 또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를 겨냥해 성룡이 준비한 JJCC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20대 초반의 한국인 멤버 네 명과 중국인 멤버 한 명 등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 JJCC는 평균 신장 180cm 이상의 화려한 비주얼과 체계적 트레이닝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겸비한 아이돌 그룹이다. JJCC는 이달 중 공식 데뷔 무대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포미닛은 최근 공개한 티저로 소녀적인 감성과 성숙미를 한꺼번에 내뿜으며 '섹시 카리스마의 아이콘'으로서 귀환을 알렸다.

이에 3월 가요계는 경쟁 구도가 아니더라도 신구 세대들의 조화로 한층 풍요로운 가요 시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동방신기 오리콘 일간 이어 주간차트도 1위

동방신기(사진)가 일본 오리콘 차트 기록을 또 한번 갈아치웠다.

지난 5일 현지에서 출시한 새 앨범 '트리'는 발매 당일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주간차트에서도 정상에 등극했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베스트앨범 '베스트 셀렉션 2010', 정규앨범 '톤' '타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오리콘 앨범 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22만 5000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톤'과 '타임'에 이어 정규앨범 세 장 연속 첫 주 20만 장 돌파 기록을 세웠다. 이는 종전 해외 그룹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운 본조비의 두 작품 연속 20만 장 돌파 기록을 13년10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다.

오리콘은 11일 홈페이지 뉴스에서 "정규앨범 석 장이 연속해 첫 주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한 건 해외 그룹 사상 본조비가 '디즈 데이스' '크러시' 두 장의 앨범으로 세운 기록 이후 처음이다"고 전했다.

동방신기는 오리콘 싱글 부문에서도 주간 싱글차트 통산 12회 1위에 올라 일본 역대 해외 아티스트 중 최다 1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suno@

오윤아 '너희들은 포위됐다' 캐스팅

차승원 전 아내역 맡아

배우 오윤아(사진)가 SBS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 출연을 확정 지었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빼어난 미모에 뛰어난 패션 감각과 강단 있는 성격을 지닌 여형사 김사경을 연기한다. 틀에 박힌 여형사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어 하며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애쓰려는 인물이다.

또 서판석 역의 차승원과는 옛 부부 사이로 오윤아가 강남서 형사과 실종팀장으로 부임하면서 형사과 강력2팀장인 차승원과 재회하게 된다.

오윤아는 "드라마 '맏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합류하게 돼 쉴 시간이 없지만 너무 좋은 작품이고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 출연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사경이란 인물을 통해 당당하고 멋진 여형사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 여자로서도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연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승원, 이승기, 고아라에 이어 오윤아의 출연 확정으로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다음달 말 방영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튀는 인어공주' 오렌지캬라멜

싱글 '까탈레나' 음원 공개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닛 오렌지캬라멜(사진)이 인어공주로 변신했다.

오렌지캬라멜은 12일 세 번째 싱글 '까탈레나'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앞서 공개된 티저에서 오렌지캬라멜은 인어공주 차림을 하고 있지만 비닐 팩에 싸여 있거나 초밥 접시 위에 올려져 있는 등 독특한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다. 또 일부 공개된 뮤직비디오에선 개그맨 김대성(왼쪽)이 문어로 변신하고 정태호는 초밥집 손님 역할을 맡아 오렌지캬라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소속사 관계자는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립스틱'의 뮤직비디오 감독이 다시 한 번 연출을 맡았다"며 "이번에도 역시 오렌지캬라멜다운 코믹한 콘셉트다. 바닷가에 살던 인어공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부에게 잡혀 수산시장을 거치고 초밥집까지 가게 되는 등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말했다.

이어 "섹시 걸그룹 콘셉트 홍수 속에 오렌지캬라멜은 약간 코믹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오렌지캬라멜 멤버 나나가 폭탄 발언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날 나나는 함께 듀엣곡으로 입맞추고 싶은 남자 아이돌이 있느냐는 질문에 "듀엣 말고 그냥 입을 맞추고 싶다"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이소라 6년만에 정규앨범 '8' 발표

가수 이소라(사진)가 6년 만에 여덟 번째 정규앨범 '8'을 발표한다.

이번 앨범은 2008년 발표한 7집에 이은 정규 8집이며 총 8곡을 수록할 예정이다. 이소라는 지난 10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개설하고 '이소라 2014. 4. 8.'이라는 자필 글씨와 간단한 그림이 담긴 쪽지를 공개하며 앨범 발표를 공식화했다.

또 '별과 그림'이 8집의 중대한 힌트로 알려지면서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그림 속에 담긴 의미와 미스터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소라 측은 "이소라는 향후에도 공식 SNS를 통해서 앨범 수록곡들과 노랫말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음악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함께 나눌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8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오는 13일부터 온·오프라인 음반매장들을 통해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

/양성운기자

사)한국오페라단 창단 25주년 기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제5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

2014 THE 5TH KOREA OPERA FESTIVAL

팜므파탈 살로메의 치명적 매력!! '일곱개 베일의 춤'

SALOME

R.슈트라우스

오페라 살로메

2014. 5.2(Fri)~4(Sun) 2(Fri)PM 7:30 3(Sat)PM 5 / 4(Sun)PM 3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KOREA OPERA GROUP

당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단하나의 오페라 살로메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의 미래 도시 2114년 !!
무대 위를 질주하는 바이크들 상상을 초월하는 장엄한 무대와 파격적인 연출!!

공연문의 및 예매			
한국오페라단	02-587-1950	티켓링크	1588-7890
SAC티켓 예술의전당	02-580-1300	YES24	1566-6399
인터파크티켓	1544-1555	하나티켓	1566-6668
옥션 티켓	1566-1369		

티켓가격 R석 20만원 | S석 15만원 | A석 10만 | B석 5만원 | C석 3만원 | D석 1만원 | 페스티벌석 5만원

류승룡 '표적'서 강렬한 액션

배우 류승룡(사진)이 차기작 '표적'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액션 배우로 변신했다.

CJ 엔터테인먼트는 11일 "'표적'의 개봉을 다음달 30일로 확정 지었다"고 밝히며 극중 스틸과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이 영화는 의문의 살인사건에 휘말린 남자 여훈(류승룡)과 아내를 구하기 위해 그와 위험한 동행을 하게 된 의사 태준(이진욱), 그리고 이들을 쫓는 두 형사가 펼치는 36시간 동안의 숨 막히는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공개된 스틸과 예고편은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돼 쫓기고 있는 여훈의 긴장감 넘치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류승룡은 체중을 감량하고 위험천만한 액션 연기를 펼치는 등 역할에 몰입해 매 장면을 완성했다는 후문이다.

'내 아내의 모든 것'의 카사노바부터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허균, '7번방의 선물'의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까지 다양한 연기를 펼쳤던 그는 이번에는 거칠고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탁진현기자

메가박스 전 좌석 가죽시트로

메가박스가 전 지점 상영관에 가죽 시트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11일 발표했다.

메가박스는 코엑스점 M관을 리뉴얼하며 가죽 시트를 도입한 이래로 코엑스점 프리미엄관을 비롯한 리뉴얼 상영관이나 신규 설립된 지점에 가죽 시트를 설치해왔다. 천 시트 위주의 영화관 좌석을 가죽 소재의 좌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전국 지점에 적용할 계획이다.

메가박스 공간기획팀 김계호 과장은 "가죽 시트가 천에 비해서 단가도 높고 전체 좌석 변경에 투자될 비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나, 처음 도입한 이후 청결한 위생 관리 면에서 이점을 보이고 관객들의 선호도도 높아 장기적인 교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죽 시트는 현재 코엑스점 M2관, 프리미엄관(3·5·6~11관), 백석점 M관과 테이블 M관, 구미점 전체 상영관에 도입됐다. 다음달 초부터 분당점과 천안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

300: 제국의 부활

논스톱

폼페이: 최후의 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반격

'300: 제국의 부활' 1위 질주… 흥행 톱5에 3편 포함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물량 공세로 극장가를 점령했다.

'300: 제국의 부활'이 개봉 5일만에 누적 관객 수 85만8484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10일 기준)를 기록한 가운데 '논스톱'(누적 관객 수 150만2910명)과 '폼페이: 최후의 날'(누적 관객 수 132만854명)도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영화들은 할리우드에서나 가능한 화려한 볼거리를 앞세워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300'의 속편인 '300: 제국의 부활'은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규모 해전을 다뤘고,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최후의 날'은 도시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일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리암 니슨의 고공 액션 블록버스터 '논스톱'은 비행기 안의 테러 상황을 그렸다.

20일에는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룬 재난 블록버스터 '노아'가 개봉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세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제작진은 다양한 복제 동물 모형을 제작하고 8만5000ℓ의 물탱크 5개를 마련하는 등 화려한 특수 효과와 물량 공세로 대홍수를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

반면 지난겨울 각각 1000만 관객과 800만 관객을 넘은 '변호인'과 '수상한 그녀'로 활황기를 맞았던 한국 영화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쏟아지자 주춤한 모양새다. 박스오피스 10위권 내에 '수상한 그녀'(3위), '찌라시: 위험한 소문'(5위), '관능의 법칙'(10위) 등 단 세 편만이 올라있다.

이처럼 외화가 강세를 띠고 한국 영화가 약세를 띠는 현상의 배경은 개봉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외화 배급사 관계자는 "3월은 전통적으로 영화계의 비수기다. 그래서 한국 영화는 현재 개봉 편수가 적고, 4월 이후부터 개봉 대기 중인 대작들이 몰려있다"면서 "반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은 올해 예년보다 개봉 시기를 앞당겨 관객이 외화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일탈의 매력 다가왔다"

'가시' 장혁 체육교사 역… 조보아 "격정적 러브신 설레"

배우 장혁이 영화 '가시'로 색다른 역에 도전하는 소감을 밝혔다.

극중 한 소녀에 대한 설렘으로 파멸로 치닫는 체육교사 준기 역을 맡은 그는 11일 서울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식인 역할을 맡았다"면서 "일상에서 벗어나 설렘을 느끼고 끝내 파탄하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중학생 시절에 시인을 꿈꾼 적이 있었다고 밝히며 당시에 썼다는 '신호등은 있어야 된다'는 제목의 시를 읊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준기에게 사랑을 느낀 소녀 영은 역을 맡아 장혁과 격정적인 멜로 연기를 펼칠 신인 조보아는 "러브신이 격정적인 부분이 많아 부담됐지만 촬영을 하면서 몰입하니 설레는 감정으로 변해 행복하게 촬영했다"고 털어놨다.

13년 전 '화산고'로 장혁과 호흡을 맞춘 김태균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다음달 10일 개봉한다. /탁진현기자

11일 합정동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영화 '가시'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장혁(왼쪽)과 조보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시윤·여진구 '백프로' 늦깎이 개봉

배우 윤시윤(사진 오른쪽)과 여진구(왼쪽) 주연의 영화 '백프로'가 촬영 완료 3년 만에 뒤늦게 빛을 보게 됐다.

11일 제작사 시네마제니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다음달 3일로 개봉 날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윤시윤과 여진구는 3년 전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백프로'는 유명 프로골퍼로 이름을 날리던 백세진(윤시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섬마을 학교를 구하기 위해 악동 이병주(여진구)와 순박한 아이들을 만나 좌충우돌하는 일들을 그린다.

윤시윤의 해병대 자원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기도 하다. 윤시윤과 여진구를 비롯해 박상면·천호진·이경영·이병준·이원종 등이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8090 스타 '근대가요' 말하다

'…방자전' 14일 첫방송

주병진·박미선 등 출연 '입담 자랑'… 연예계 비화 파헤쳐

1980~90년대 연예계를 주름잡던 스타들이 뭉쳤다.

오는 14일 첫 방송 예정인 tvN '근대가요사 방자전'에서는 주병진, 박미선, 정원관, 변진섭, 김완선, 김태원 등 80~90년대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스타들이 모여 직접 연예계 비화를 파헤친다.

'방자전'의 제작을 맡은 문희현 CP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자전'은 '방송을 잘 아는 자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약어다"며 "나훈아와 남진으로 대표되는 트로트 전성기를 '고대 가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현대 가요'로 보고 그 사이인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 가요계가 꽃피우던 시절을 '근대 가요'로 정의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연예인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확인할 수 없는 루머는 입으로 전파됐고 일부 연예인들은 확인 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루머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며 "'방자전'은 당시 떠돌던 소문의 진상 확인은 물론 사라진 스타들의 근황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관·박미선·주병진·김완선·변진섭·김태원(왼쪽부터)이 tvN '근대가요사 방자전'으로 뭉쳐 연예계 비화를 파헤친다. /CJ E&M 제공

진행은 약 2년 만의 공백을 깨고 돌아온 원조 국민 MC 주병진이 맡았다. 주병진은 "요즘 방송 트렌드에 맞출 수 있을까 걱정했다"며 "이번엔 당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좀 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 80~90년대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완선과 변진섭, 최초 아이돌 그룹 소방차의 정원관, 음악은 물론 예능까지 섭렵한 기타리스트 김태원과 데뷔 27년차인 개그계의 대모 박미선도 MC로 가세해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구성+영상+호연 '3박자' 갖춘 드라마

'태양은 가득히' 반전 노려

KBS2 월화극 '태양은 가득히'(사진)가 시청률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정통 멜로와 짜임새 있는 구성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작품이 고전하는 데엔 경쟁작의 영향이 크다. MBC '기황후'는 기승냥(하지원)·타환(지창욱)·타나실리(백진희)를 둘러싼 궁중 로맨스와 암투로 역사 왜곡 논란을 잠재울 만큼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SBS '신의 선물-14일'도 타임워프라는 판타지 소재와 추리극이라는 부분을 앞세워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원·이보영·조승우 등 주연배우들이 연기 대상 경력이 있다는 점도 녹록지 않다. 반면 '태양은 가득히'는 한 남자의 복수를

그린 통속적인 내용으로 극의 재미를 떨어트리고 있으며 배우의 스타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11일 8회 방송으로 반환점을 찍은 '태양은 가득히'에도 아직 희망은 있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감상적인 영상미, 배우들의 몰입도 있는 연기로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청자 게시판에는 "흡입력 있는 최고의 드라마" "슬퍼서 더 아름답다. 시청률 이해가 안 된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수 PD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작진이 그리는 그림과 대중들의 평가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드라마의 숨겨진 매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박수진, 김수현·김현중과 한솥밥

배우 박수진(사진)이 키이스트와 계약을 맺고 배용준·김수현·김현중 등과 한솥밥을 먹는다.

11일 키이스트는 박수진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초한 외모와 함께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박수진은 2007년 KBS 드라마 '칼잡이 오수

정'에서 주인공 오수정(엄정화)의 고등학생 시절을 연기하며 당당하면서도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후 드라마 '꽃보다 남자'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최근에는 tvN '이웃집 꽃미남'에서 허당기 다분한 귀여운 악녀 차도휘로 변신해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냈다.

현재 박수진은 채널 올리브의 대표 맛집 탐방 프로그램 '2014 테이스티 로드' 진행을 맡고 있으며,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

'시한부 총각' 오정세 '4차원 소녀' 김슬기

'나 곧 죽어'서 첫 연기호흡

배우 오정세(왼쪽 사진)와 김슬기(오른쪽)가 첫 연기 호흡을 맞춘다.

오정세와 김슬기는 오는 16일 방송되는 KBS2 'KBS 드라마 스페셜 단막 2014'의 6번째 작품 '나 곧 죽어'의 우진과 사랑 역으로 각각 캐스팅됐다.

'나 곧 죽어'에서 우진은 3개월 시한부 인생으로 예기치 못한 죽음의 순간에 놓이게 된 인물이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자신의 젊음을 쏟았지만 늘 간발의 차로 낙방했던 우진은 실패로 얼룩진 청춘의 끝자락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35세 노총각이다.

오정세는 "드라마 스페셜의 많은 작품들이 영화 못지않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재미뿐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주위를 살피며 삶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4차원 외계 소녀 사랑으로 출연한 김슬기는 "시청자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의 진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돈생돈사' 엄기준

'골든크로스'서 펀드매니저

배우 엄기준(사진)이 돈에 살고 돈에 죽는 남자가 되어 돌아온다.

엄기준은 KBS2 수목극 '골든크로스' 출연을 확정하고 외모와 매너, 위트 삼박자를 모두 갖춘 완벽남으로 변신한다. '골든크로스'는 음모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남자의 복수극을 그린 드라마다.

극중 엄기준은 '식인 상어'로 불릴 만큼 돈 버는 일에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펀드매니저 마이클 장 역을 맡았다. 준수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위트 있는 말솜씨로 뭇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마이클 장은 돈 때문에 몇천만원이 넘는 프랑스산 와인을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하는 '돈생돈사' 캐릭터를 연기한다.

'각시탈' '즐거운 나의 집' 등의 히트작을 집필한 유현미 작가와 '힘내요, 미스터 김' '메리는 외박중' '드라마 스페셜' 시리즈의 홍석구 감독이 뭉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골든크로스'는 '감격시대' 후속으로 다음달 방송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전현무 파일럿 프로 '연애고시' MC 맡는다

방송인 전현무(사진)가 MBC 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의 MC로 나선다.

11일 MBC 관계자에 따르면 전현무는 MBC의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연애고시-연애조난자 구출프로젝트'(가제·이하 '연애고시')의 MC로 발탁됐다.

'연애고시'는 연애에 매번 실패하거나 또는 연애가 너무 어려워 연애조난자라 불리는 연예인들을 위한 솔로 탈출 프로젝트다. 비주얼과 스펙을 모두 갖췄지만 반쪽을 찾지 못해 솔로로 지내고 있는 연예인들이 고시생이 돼 연애고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애고시'에서는 단순한 흥미위주의 남녀 매칭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남녀의 심리를 알아보는 시험을 통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연출을 맡은 문경태 PD는 "'연애고시'에서는 '고시'라는 과정을 통해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이상형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MC로는 애드리브와 입담이 좋아 출연자와 MC들 간 쌍방향 소통이 좋은 전현무가 적격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무는 '연애고시'를 통해 방송계의 1인자들과 맞붙게 됐다. 이미 유재석과 강호동, 신동엽 등 쟁쟁한 MC들이 봄맞이 파일럿 프로그램 론칭을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연애고시' 제작진은 전현무 외에도 '젊은 피'를 더 수혈해 대형 MC들에 맞선다는 복안이다.

'연애고시'는 다음달 중순 방송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750㎖의 의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와인메이커'가 개발됐다는 소식이다. 이 기기에 물과 와인의 재료가 되는 키트를 넣고 3일만 기다리면 와인이 된단다. 그러나 진정한 와인이라 할지는 의문이다.

와인 양조에는 물 한 방울 첨가되지 않는다. 와인 한 병은 통상 750㎖다.

한 병의 와인을 만드는 데는 포도 1kg이 들어간다. 포도는 무게의 비중으로 볼 때 10% 내외의 껍질과 5% 정도의 씨, 나머지가 과육으로 구성된다.

포도 껍질은 발효 과정을 통해 와인에 색깔을 입히고 탄닌을 우려낸다. 씨는 지방질과 탄닌 성분이 강하나 대부분 제거된다. 결국 80~85%의 과육으로 와인을 만드는데, 발효 과정에서 당분이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분해되고 가스는 공중으로 날아간다. 발효와 숙성, 병입 과정에서 증발 또는 찌꺼기 등의 여과를 거쳐 또 일정 부분이 줄어든다. 그 나머지가 750㎖의 와인으로 탄생된다. 의도적이었든 우연이었든 와인 한 병이 750㎖로 만들어진 이유라면 이유다.

포도의 과육 속 수분은 1년 중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익을 때까지 약 100일에 걸쳐 껍질 속에 쌓인다. 이보다 더 순수한 수분은 없다.

과육은 또한 미네랄과 영양소의 창고이기도 하다. 1년 동안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뽑아 올린 각종 양분은 포도 알에 농축된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토양과 토질에 따라 양분의 종류도 제각각이다. 철분 등 금속 성분이 많은 토양이나 조개 화석이 많은 곳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미네랄 향이 강하다. 진흙과 자갈 토양에서 만들어진 와인은 대체로 흙 냄새와 나무 향이 진하다. 뉴질랜드 등 녹색지대의 소비뇽 블랑 화이트와인은 유난히 풀 향기를 내뿜는다.

와인이 술이면서도 심장병 등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순수함 때문이다. 그래서 와인 제조업자들도 자연의 가치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와인을 기계로 만든다? 와인의 맛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프렌치 패러독스'가 표현하듯 우리 몸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그런 '자연이 만들어낸' 와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mcho@metroseoul.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8			5				6	4
	1						5	
				1			3	6
	6		7	9	3		2	
2	4			8				
	9						4	
7	8				1			5
			2					3

			7		8			1
7			9	2				
5	9	8					2	
	1		5					9
			2		1			
8					9		6	
	4					5	8	2
				4	7			3
1			3		2			

스도쿠 정답

5	2	4	1	6	8	3	7	9
8	3	9	5	2	7	1	6	4
6	1	7	9	3	4	8	5	2
9	7	8	4	1	2	5	3	6
1	6	5	7	9	3	4	2	8
2	4	3	6	8	5	9	1	7
3	9	2	8	5	6	7	4	1
7	8	6	3	4	1	2	9	5
4	5	1	2	7	9	6	8	3

4	6	2	7	3	8	9	5	1
7	3	1	9	2	5	8	4	6
5	9	8	6	1	4	3	2	7
6	1	4	5	8	3	2	7	9
9	7	5	2	6	1	4	3	8
8	2	3	4	7	9	1	6	5
3	4	7	1	9	6	5	8	2
2	5	9	8	4	7	6	1	3
1	8	6	3	5	2	7	9	4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예민한 성격 직장적응 힘들어 긍정적 사고 단전수련이 도움

신경이 남자 80년 4월 26일 음력 오전 6시

Q 예민한 성격 탓에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퇴근해서도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면 회사 생활에 자신감을 잃어만 가고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몇 년 전부터는 혈압 약을 먹게 되었고 안 먹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A 생일주(生日柱)가 장성(將星:장군별)에 양인(양의 뿔)을 놓고 있으니 영웅적 기질이 있어서 성운(盛運:성하는 운)에 있으면 큰 인물이 되며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으나 그 반대 운일 때는 사면초가를 겪게 됩니다. 현재는 비사교적이며 구설수가 따르는데 잘하려고 해도 도처에서 시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귀문살(鬼門殺: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에 형살(刑殺)과 충살(沖殺:충돌함)을 받는 시기로서 인연법에 정해진 사주팔자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버티도록 하세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단전 수련을 하고 자긍심을 키우는 훈련을 하도록 하면서 하루하루 신이 내린 선물의 보따리를 풀어가십시오.

이직준비 어떤 직종이 좋을까 실력 키우고 자영업투자는 금물

헤라클래스 남자 72년 11월 18일 자시

Q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 말로는 이직운은 있으나 지금 이직하면 자릴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재물복은 있는데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어떤 직업이 맞으며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커가는데 앞날이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어느 분야에서든 기반을 닦아 작은 성공이나마 이루는 일은 몹시도 어렵습니다. 기회는 늘 내 주변에 있는 것이나 성실한 사람에게만 그 특권은 머무르게 됩니다. '천지가 물'이니 의혹이 많고 착하지만 저력이 부족합니다. 일득삼실(一得三失)이라 사주 구조에 비겁(比劫:나와 동급)이 강하여 꾸준함이 적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아 손실이 따른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업종에 인연을 갖건 큰 복은 없으니 이직을 하지 않을수록 기회를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외국어도 배우고 실력을 키우십시오. 차후라도 재물이 생기는 김새가 보이면 도처에서 손을 빌리게 되니 돈 있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자영업 투자는 금물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12일 (음 2월 1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중매한 일은 결실 본다. **60년생** 운전할 땐 안전사고 조심~. **72년생** 상사의 뜻 존중하면 얻는 게 많다. **84년생** 공적인 일엔 옳고 그름 확실히 따져라.

49년생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 마라. **61년생** 자영업자는 큰 거래처가 생긴다. **73년생** 예감이 나쁜 일은 진행하지 마라. **85년생** 모난 돌이 정을 맞는 법이다.

50년생 친구 상갓집 갈 일 생긴다. **62년생** 작은 것에 고무되어 큰 것 놓치지 마라. **74년생** 좋은 일이 생겨서 분주하게 보낸다. **86년생** 협조를 할 땐 확실히 해야 효과~.

51년생 대접받으려면 말 아껴라. **63년생** 서쪽에 가면 경품이나 선물 기다린다. **75년생**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힘내라. **87년생** 속내 드러내면 상처만 입는다.

52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4년생** 믿었던 사람의 딴 행보에 쇼크~. **76년생** 생각도 못 한 이득이 생긴다. **88년생** 힘들었던 일이 해결되어 야호~.

53년생 어른으로서 중심 잘 잡아라. **65년생** 금융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77년생** 파워 게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 **89년생** 영웅 심리에 흥분하면 큰 일 망친다.

42년생 마음 비우면 웃음이 찾아온다. **54년생** 자금이 부족하면 남쪽으로 출행하라. **66년생**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78년생** 겉과 속이 다른 동료 조심할 것.

43년생 남을 도울 땐 대가 바라지 마라. **55년생** 사람 문제 방심하면 우려가 현실로 된다. **67년생** 내 뜻을 남에게 강요 마라. **79년생** 데면데면한 배우자가 신경 쓰인다.

44년생 솔선수범 리더십이 필요하다. **56년생**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67년생** 새 동반자와 어색함만 깨면 잘 풀린다. **80년생** 배알이 꼴려도 상사 취향에 맞춰라.

45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 조심~. **57년생** 짭짤했던 부동산은 미운 오리가 된다. **69년생** 돈 문제는 앞장서지 마라. **81년생** 양보의 미덕 발휘하면 얻는 게 많다.

46년생 자녀가 고민거리 안긴다. **58년생** 파랑새는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0년생** 막혔던 거래는 원활하게 된다. **82년생** 변화보단 현재 상황 유지하는 게 무난~.

47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 **59년생** 성의를 다하면 적들도 감동한다. **71년생** 배우자 앙탈에 종일 심란하다. **83년생** 멀리 보고 어른 충고 받아들여라.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시범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AFP연합

류현진 더 견고해졌다

오클랜드전 5이닝 1실점 4K '인상적 투구'… 홈런 맞고도 흔들리지 않아

LA 다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이 세 번째 시범경기 등판에서 호투를 이어가며 23일 호주 원정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류현진은 11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캐멀백 랜치에서 열린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의 시범경기에서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1실점했지만 탈삼진 4개를 잡아냈다. 70개의 공으로 5회를 책임지는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이 돋보였다. 다저스는 8-3으로 앞서가던 8회 5점을 내줘 8-8로 비겼다.

단 한 개의 실투가 담장을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4-0으로 앞선 5회초 오클랜드 선두 타자 마이클 테일러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렸다. 타구는 왼쪽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그러나 류현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두 명의 타자를 땅볼과 삼진으로 잡아낸 뒤 잠시 제구가 흔들린 류현진은 제이크 엘모어에게 이날 첫 볼넷을 허용했다. 릭 허니컷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 류현진은 '더 던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류현진은 기습 번트를 시도한 빌리 번스의 타구를 직접 잡아 1루에 던져 5회를 마무리했다.

류현진의 구위와 안정감을 확인한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만족한 표정으로 더그아웃으로 들어온 그의 등을 두드렸다.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호투를 펼친 류현진은 시범경기 평균 자책점을 3.00에서 2.45로 끌어내렸다.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인 류현진은 17일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시범경기에 마지막으로 등판한 뒤 23일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정규시즌 개막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프로야구 '부상 경계령'

2014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8일 개막된 가운데 각 구단에 부상 경계령이 떨어졌다.

시범경기 첫날부터 주축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 소식이 이어지고있다. 스프링캠프에서부터 한 해 농사를 위해 몸 만들기에 노력했던 선수들의 부상은 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큰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다.

경기 도중 타구에 정강이를 맞은 김진우(31·KIA 타이거즈)가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KIA 선동열 감독은 11일 목동구장에서 열리는 넥센 히어로즈와의 시범경기에 앞서 "(김)진우가 미세 골절이 의심돼 X레이를 찍었으나 다행히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SK 와이번스 정상호가 삼성 라이온즈 나바로의 배트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날 정상호는 대구 삼성전에서 선발 포수로 나서 김광현과 배터리를 이뤘다.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된 경기에서 정상호가 나바로 타석 때 갑자기 쓰러졌다. 3회말 나바로가 김광현의 공에 크게 헛스윙을 한 뒤 다시 배트를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정상호의 머리를 강타한 것이다. 정상호는 잠시 쓰러져서 한동안 고통을 호소하다가 다시 일어나 마스크를 썼다. 4회말 수비 때 이재원으로 교체됐다.

한편 롯데 내야진 박기혁은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제외됐다. 지난 6일 SK 와이번스와의 연습경기에서 수비 도중 타구에 오른쪽 검지 골절상을 입은 박기혁은 수술을 받고 두 달가량 공백이 불가피한 상태다. /양성운기자

박인비 "맹호장 수상은 가문의 영광"

'골프 여제' 박인비(26·KB금융그룹)가 시즌 첫 우승과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했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11일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박인비에게 맹호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승(메이저 3승)을 거두고 한국 선수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박인비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다.

이날 박인비는 "아버지가 모범납세자 상은 받으신 적이 있는데 집안에 훈장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인 것 같다"면서 "가족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신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4월부터 세계 랭킹 1위를 달리며 여자 골프 판도를 주도한 박인비는 9일 막을 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올해 첫 승을 기록했다.

박인비는 "시즌 첫 승을 생각보다 빨리 거둬 기쁘다"면서 "우승하고 좋은 상을 받는 겹경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한 후 훈장을 들어 보이고 있는 박인비. /연합뉴스

이날 곧장 미국으로 떠나는 박인비는 20일부터 열리는 파운더스컵을 시작으로 8월까지 미국에 머물며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그는 "지금까지 치른 경기는 미국 본토를 위한 전초전이었다"면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으니 미국에서 시차 적응을 잘하면 다음주에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성운기자

최강희 "자신만만… 목표는 우승"

오늘 멜버른 빅토리와 AFC 챔스리그 조별 2차전… 울산은 가와사키와 '한판'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서는 울산 현대, 전북 현대 감독이 출사표를 던졌다.

11일 전북 현대 최강희 감독은 호주 멜버른의 도크랜드 스타디움에서, 울산 현대 조민국 감독은 울산 현대호텔에서 경기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1강 후보' 전북 현대의 최 감독은 G조 2차전(한국시간 12일 오후 5시30분)을 앞두고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감독은 "멜버른 빅토리는 미드필더와 공격진에 좋은 선수가 많다"며 "8일 K리그 경기를 치르고 장시간 이동하느라 선수들이 피곤한 상태여서 체력이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은 지난달 26일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고, 지난 8일 K리그 클래식 개막전에서도 3-0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 감독은 "지난 두 경기에서

오늘 누가 웃을까? 최강희(오른쪽) 전북 현대 감독과 케빈 머스캣 멜버른 빅토리 감독이 1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도크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팀이 자신감을 얻고 상승세를 타고 있어 내일 분명히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며 "올 시즌 목표는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가와사키 프론탈레(일본)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2차전 경기를 하루 앞두고 "홈 첫 경기여서 상당히 중요한 시합"이라며 "슈팅 숫자를 늘려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와사키는 스루패스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포항 스틸레스와의 개막전 때문에 많이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플레이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프로 데뷔 후 첫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조민국 울산 현대 감독이 공격적인 플레이로 홈 팬들 앞에서 3연승을 거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과 가와사키의 경기는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다. /양성운기자

지소연 4도움… 여자축구 키프로스컵 3·4위전

'지메시' 지소연(23·첼시 레이디스)의 맹활약으로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이 2014 키프로스컵 국제대회 3·4위 결정전에 진출했다.

지소연은 11일 키프로스 파랄림니 타소스마르코 경기장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2014년 키프로스컵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대표팀의 네 골을 모두 어시스트했다. 뉴질랜드를 4-0으로 격파한 한국은 조별리그 전적 1승2무로 3·4위전에 진출했다. 스코틀랜드와 오는 12일 3위를 놓고 대결한다. /양성운기자

프로배구 전적 11일

흥국생명	2	3	도로공사
대한항공	3	0	LIG손해보험